

경제·안보 전략적 대화채널 복원 ‘한반도 비핵화·대만 문제’ 시각차

韓中 정상회담 성과

양국 정상, 정기적 회동 공감대
李 대통령, 핵잠수함 도입 입장 설명
한한령 해제 ‘점진적·단계적’ 접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샤오미’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는 등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를 연출했다. ‘관계 회복’에 중점을 뒀던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관계 진전’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다만 한중이 각자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북핵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5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취임 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한중 양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못다 나눈 대화를 이어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한다.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한중은 양국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 국방 당국 간 소통이나 협한·협중정서 해소를 위한 민간교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 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만찬을 마친 뒤 시진핑 주석과 셀카를 찍고 있다. /뉴시스

경제적인 성과도 있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양국 간 경제협력력이 보다 공고화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중 간 협력이 과거 제조업 중심의 단순한 구조에서 서비스,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같은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 핵잠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미 원자력 협

정 개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관심을 모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 및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한령이 있나 없나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대화도 있었다”며 “서로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주석 역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양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통시장 진흙탕 싸움 정부, ‘현장점검’ 칼 댔다

통신사 ‘현금살포’ 수준 경쟁 이어져
방미통위 “소비자 피해 면밀히 감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양상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를 소집한 데 이어, 다음 주 현장점검에 나선다. KT의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비방 광고와 막대한 보조금 살포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시장 질서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6일간 KT를 떠나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총 7만9055명으로 집계됐다.

이탈 고객을 잡기 위한 통신사 간 경쟁은 ‘현금 살포’ 수준으로 격화됐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에서는 출고가 129만 원인 아이폰 17을 번호이동으로 구매할 때 기기값 0원을 넘어 소비자에게 12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명 ‘차비 마케팅’이 등장했다. 갤럭시 S25 역시 번호이동 시 최대 45만 원의 페이백이 제시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편법(단통법) 폐지 이후 가장 낮은

시세가 형성된 상태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비방 마케팅도 임계치를 넘었다. 일부 대리점 전면에는 “다 탈린 KT 못 써, 안전한 XX으로 이동”, “KT 고객님 위험!” 등 경쟁사의 보안 이슈와 해킹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문구가 내걸리고 있다. KT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기기변경 고객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책정하며 ‘수성’에 나섰지만, 몰려드는 번호이동 수요를 막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실제로 이탈 고객의 70% 이상이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재가입 혜택을 강화한 SK텔레콤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다음 주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해 허위·과장 광고와 지역·연령에 따른 부당한 차별 지원금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됐더라도 거주 지역이나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재정부 “이번 주중 국방부 예산 처리”

국방비 미지급 논란… “연말집행 영향”

최근 불거진 정부의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이번 주내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재경부(舊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총 1조 3000억 원 상당의 국방 예산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는 양호한 세수 여건 속에서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자연불용(쓰지 않은 예산) 규모가 줄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한 탓에,

일부 세출 소요가 연내 집행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그 이듬해 1월 중 순차적으로 집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재경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도 세입을 기반으로 연내 집행하지 못한 세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주 중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집행이 지연된 소요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리창 총리 “한중 협력 범위·깊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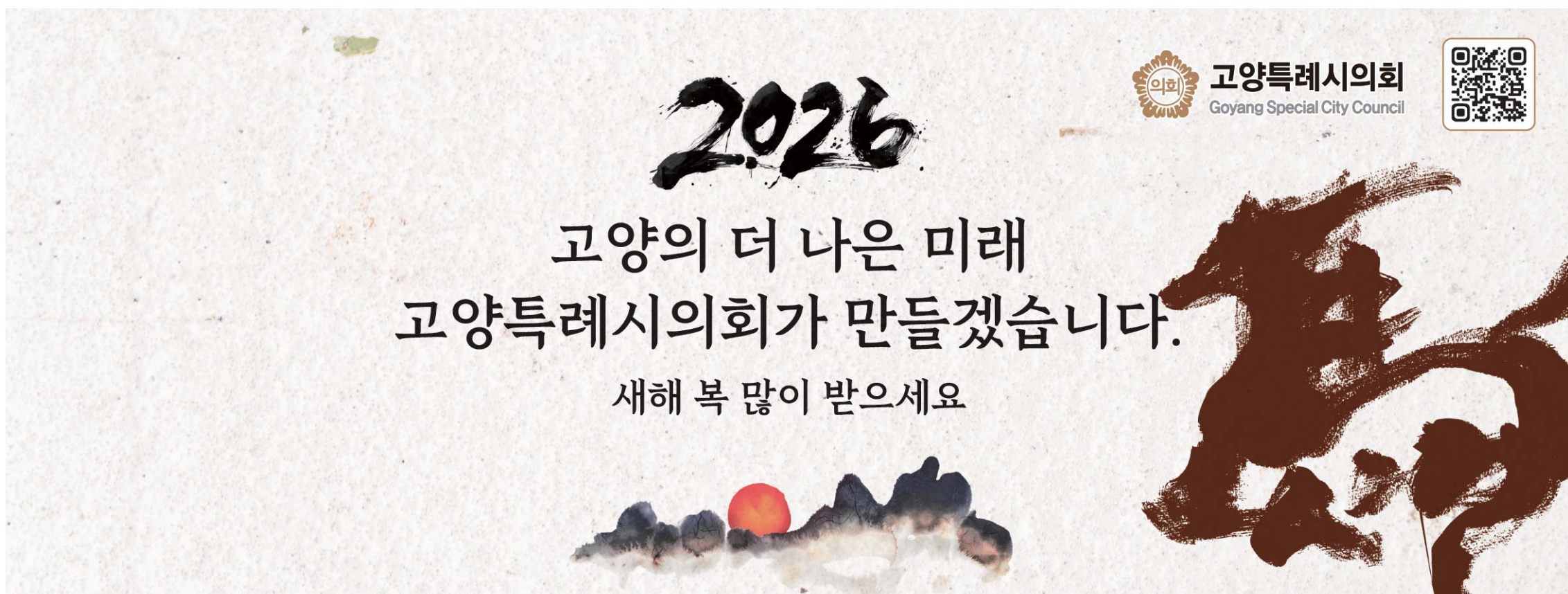
» 1면 ‘리창 만난 후…’서 계속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환영하며 전날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에 강한 원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또 리 총리는 “경제를 진작하고

민생을 촉진하는 것은 정치를 실시하는 첫 번째 임무로서 작년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래 그 적극적인 성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시종일관 대(對)한국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고, 중한

관계 우호를 전제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면서 양국 관계는 올바른 궤도에 따라 앞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것을 추동해 협력의 범위, 그리고 깊이를 확대하면서 양국 국민에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용의가 있다”며 “이 대통령님과 더 솔직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서예진 기자



‘프롬 스크래치’ 기준 공백… 국가대표 AI 흔드는 정부 정책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

독자개발 강조했지만 범위 불분명
정부 원칙은 선언적, 기준은 부재
오픈소스 인코더 두고 논란 재점화
네이버·업스테이지 해명에도 공방
업계 “명확한 판단 기준 시급”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프롬 스크래치’ 논란이 업스테이지에 이어 네이버까지 번지면서, 어디까지를 독자 기술로 봐야 하는지를 둘러싼 기준 부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외 오픈소스 인코더 활용을 두고 기술 주권을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 선택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지만, 정부가 제시한 원칙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반복되는 논란은 결국 ‘프롬 스크래치’라는 말이 정책 구호로만 존재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업스테이지에 이어 네이버에도 ‘프롬 스크래치’ 논란이 일면서 국가대표 AI에 일정한 프롬 스크래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 개발에서 프롬 스크래치는 기존에 만들어진 모델이나 데이터 가중치를 재 활용하지 않고, 모델 설계부터 사전 학습(Pre-training)까지 모든 과정을 처



업스테이지에 이어 네이버에도 ‘프롬 스크래치’ 논란이 일면서 국가대표 AI에 일정한 프롬 스크래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헛GPT로 생성한 이미지

음부터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기술 주권’ 때문이다. 해외 모델을 미세 조정(파인튜닝)해서 쓰다가 원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가격을 올리면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롬 스크래치는 소비된 AI 구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지난 5일 네이버클라우드의 멀티모달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 시드 32B 싱크’가 중국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모델 ‘큐웬(Qwen)’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

오며 논란이 시작됐다. 비전·오디오 인코더의 가중치(웨이트)가 큐웬과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클라우드는 외부 기술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전략적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코더는 시각 정보를 신호로 변환하는 ‘시신경’일 뿐, 사고를 담당하는 핵심 ‘두뇌’는 100%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논리다. 이미 표준화된 고성능 모듈을 써서 효율을 높였을 뿐,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모델 성능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인코더를 가져다 쓴 것을 두고 ‘프롬 스크래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프롬 스크래치 논란은 한 번 더 있었다. 네이버에 앞서 지난 1월 2일, 업스테이지 역시 비슷한 논란을 겪었다. 자사 모델 ‘솔라 오픈 100B’가 중국 기업의 모델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업스테이지는 숨지 않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논란 발생 하루 만에 개발 로그와 체크포인트 등 핵심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유사성 지표로 제시된 데이터가 전체의 0.0004%에 불과한 통계적 착시임을 증명했고, 결국 의혹을 제기했던 측의 사과와 게시물 삭제를 끌어내며 논란을 잠재웠다.

이처럼 문제가 반복해서 불거지는 것은 ‘어디까지 직접 만들어야 프롬 스크래치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모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해외 모델 미세 조정(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의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이라며 “타

사 모델에 대한 라이선싱 문제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 인코더를 활용하는 행위가 이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AI 업계에서는 자체적인 기준 정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승현 포티투마루 부사장은 최근 깃허브에 올린 게시물에서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무엇이 진정한 기술 주권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그는 AI 모델의 주권 수준을 판별하는 ‘7단계 등급 체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부사장은 주권·통제 수준이 없는 빅테크 모델 API 호출인 0단계부터 국가 안보가 보장되는 6단계까지 나눴다. 그러면서 그는 4단계부터 AI에 대한 통제권이 확보된다고 이 단계는 해외 모델 구조를 참조하되 가중치는 100% 자체 학습을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그는 “이 기준은 단순한 성능 평가가 아닌 데이터의 기원과 통제권, 구조 및 코드의 수정 권한, 국가 안보적 가치와 인프라 자립도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20조 기술수출 성과’… 플랫폼·신약·CDMO로 글로벌 확장 가속

K-제약·바이오 체질 전환 본격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참가
빅파마·투자자 미팅통해 협력 모색
위탁생산·자체 개발 등 영역 확장

지난해 약 20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성과를 축적한 K제약·바이오가 올해 첫 글로벌 행보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 무대에 오른다. JPMHC는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헬스케어 투자 행사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 주요 투자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기술이전 및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가능성을 타진할 방침이다.

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026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가 개최된다. 국내 기업의 참가 범위는 기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비롯해 독자 플랫폼을

구축한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전문 기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수출 규모가 지난해 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 행사 참가로 추가적인 기술수출 기대감이 커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집계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누적 기술수출액은 약 20조 8350억원이다. 알테오젠, 에비엘바이오, 올릭스 등 플랫폼 기술을 앞세운 기업들이 잇따라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며 실적 확대를 이끌었다.

이러한 성장세에서 JPMHC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해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는 기폭제가 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술수출을 기록한 에비엘바이오의 경우에도 JPMHC를 계기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에

비엘바이오는 지난해 4월 글로벌 제약사 GSK와 4조원대의 그래파디-B 기술이전을 체결했고 같은 11월에는 일라이릴리와 3조원대 규모의 그래파디-B 기술이전을 맺었다.

에비엘바이오는 창립 이래 매년 초청을 받아왔다. 올해 행사에서도 신규 미팅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 법인 네옴바이오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과 만나 향후 개발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디앤디파마텍과 알테오젠이 15일 ‘아시아태평양 트랙’ 발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먼저 디앤디파마텍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DD01’ 임상2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회 탐색에 나선다. 알테오젠은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원천 기술로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

MO)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대거 참가해 수주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들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고객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7년부터 10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도 13일 행사 내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메인 트랙’에서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신규 위탁생산(CMO) 브랜드 엑셀런스와 사업 계획, 초격차 생산 능력 등을 소개한다.

올해 1분기 미국 메릴랜드 락빌에 위치한 총 6만 리터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만큼, 향후 중장기 비전 발표가 주목받는다.

글로벌 생산에 돌입하는 셀트리온도 CDMO 사업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미국 뉴저지 브랜치버 그 소제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 인수를 완료했다.

셀트리온의 경우 신약개발 계획에도 업계 관심이 쏠린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중 거점(듀얼 사이트) 운용 전략에 시동을 건다. 지난해부터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에서 ADC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3건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전통 제약사 유한양행, 종근당 등이 기술수출한 파이프라인의 후속 연구결과도 나온다.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에 기술수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적응증 확대, 종근당이 노바티스에 기술이전한 CKD-510의 임상2상 진행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후속 연구결과 성과에 따라 마일스톤 수령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하늘길 독점’ 막는다… 알래스카·에어프레미아·티웨이 투입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대체사 선정
인천-시애틀·호놀룰루·자카르타 포함
정부 “상반기부터 항공사 순차 취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주요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등 대체항공사가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후속 절차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습.

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 결과 국제선에서는 인천-시애틀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에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북수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으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이 최종 선정됐다. 단독 신청이었던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

공사를 그대로 대체항공사로 지정했다.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하계 87회)와 제주-김포(동계 74회) 노선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의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 노선은 버진애틀랜틱이 대체항공사로

지정돼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른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서는 대체항공사 이전이 이미 완료됐다.

반면 인천-광주, 부산-광주,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이번 선정 절차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선정된 대체항공사들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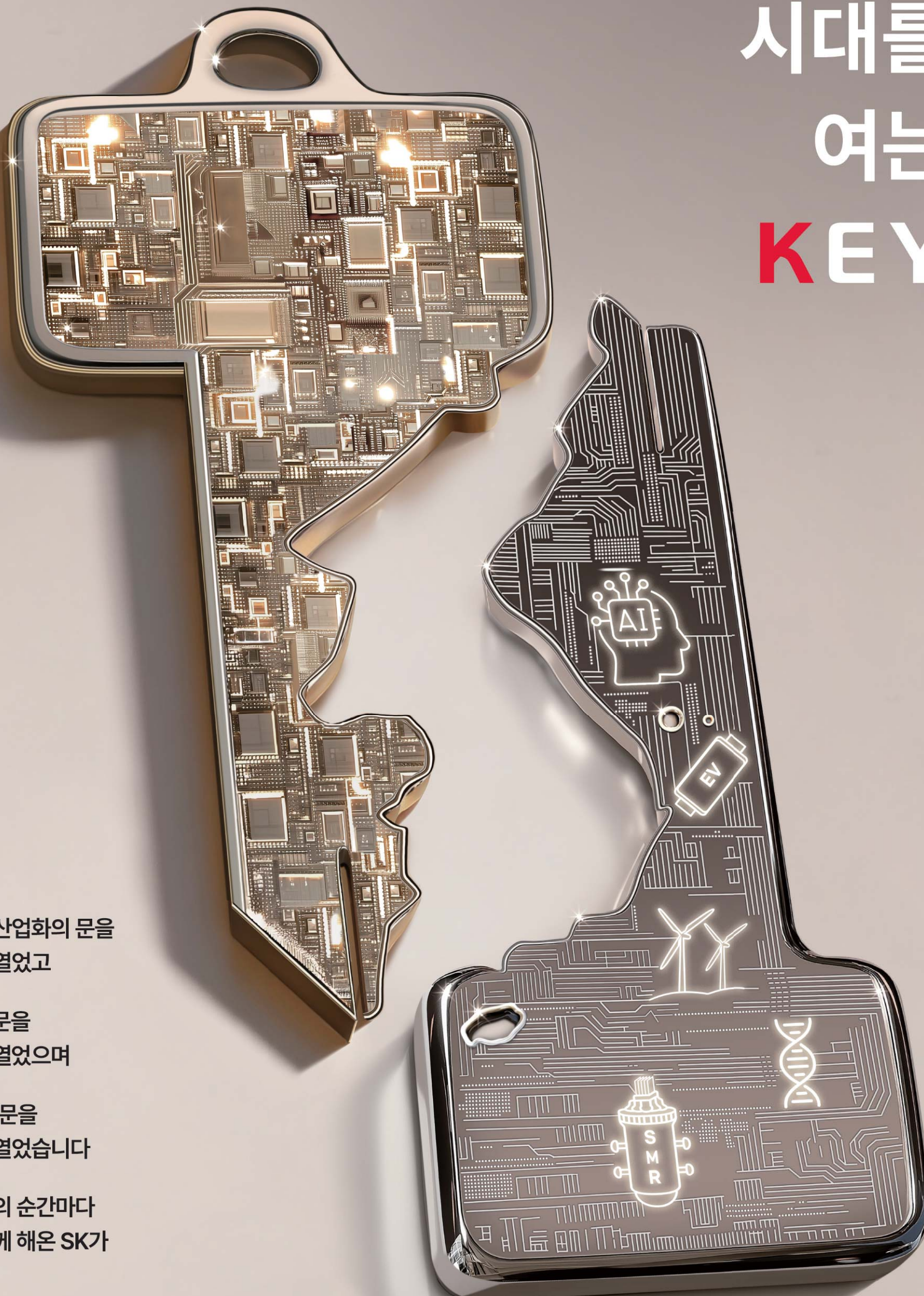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장동혁, 이르면 내일 쇠신안 발표 당 개혁·외연 확대·尹 단절 필요

장 대표 ‘걸림돌 제거’ 발언 등에
중도층 포용 메시지·개혁 없음을 뜻
지지층 확대 노력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하는 당 쇠신안이 이르면 오는 8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말과 행동에서 중도층보다 강성 지지층을 위한 목소리를 내온 장 대표가 노선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쇠신과는 장 대표의 쇠신안에 중도층이 관심있어 할 만한 윤석열 전 대통령 12·3비상계엄 선포·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외연 확장 및 인재 영입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장 대표를 만나 “지금 또 화합도 해야 하고, 단합도 해야 한다. 젊은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쇠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 신년인사회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인선 4개월 만에 사퇴한 것도 장 대표에게 쇠신 의지가 읽히지 않아서라는 설도 나왔다.

다만, 장 대표와 자강파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장 대표의 노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장 대표는 한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며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지만, 윤 전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을 거치며 절연했고 지난 전 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당 대표에 선출됐다.

장 대표는 지난해 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두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공개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장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이걸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 입장에서 걸림돌은 당내 친한계(친한동훈계)를 꾸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에 책임이 있다며 중앙윤리위에 징계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장 대표의 쇠신안이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며 “중도층이 원하는 메시지나 개혁 방안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당 내에선 당의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노력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당의 노선 투쟁이라 할까, 내분이라 할까 이것들에 당원과 국민이 싫증을 많이 내고 짜증을 내지 않나”라며 “저는 크게 보고 크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그런 것을 강조하면 나중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조언했다.

3선 성일중 국민의힘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의 쇠신안 발표를 앞두고 “여의도연구원(당 싱크탱크)을 비롯해서 당의 개혁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공감받아야 할 것”이라며 “두 번째는 외연 확대 문제다. 전직 대통령(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 장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가서 찬성을 한 사람이다.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에 대한 소구력을 강하게 하다보니 외연이 좁아져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저는 쇠신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당이 갖는 취약계층에 대한 격차 문제라든가 정책적 측면을 과감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이혜훈 청문회 이틀동안 진행 강력 촉구”

폭언·증여세 의혹 등 논란 속속
정청래 “후 대통령 결정 도와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한다면 이틀은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도 넘치는 의혹에 곤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청래 당 대표의 주장도 나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노른자’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하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성동에서 출마한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일할 결심한 이후 이 후보자를 당에서 제명하고 ‘배신자’ 낙인을 찍고 있다.

청문회를 준비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일동은 전날(5일) 성명서를 내고 통상 하루 일정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은 국민 우롱하는 ‘자격 미달 인사 참사’라며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없다면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서초 갑에서 세 번 연속 공천받을 정도로 당에서 키운 인재인데,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일할 마음을 가진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인격모독성 폭언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 지시 ▲최근 10년 새 이 후보자의 가족 재산 110억원 이상 증가 ▲배우자 영종도 토지 매입, 수용 과정에서 약 3배 차의 의혹 ▲임신 중이던 현직 구의원에게 지속적 괴롭힘을 했다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에도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 간사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세 아들에 대한 ‘엄마 찬스’ 논란을 꺼내들었다. 박 간사는 “이 후보자는 ‘금수저 삼형제’에 대한 증여세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특정회사의 비상장주식을 800주씩 모두 2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고재산 상 각각 10억3000만원, 총 31억원에 달한다. 2016년 10월에 65%, 2021년 2월에 35%를 증여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증여세 납부 내역이 수상하다.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에 세 아들이 각각 4300만원씩, 총 1억2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2021년은 장남이 30살, 차남 28살, 삼남은 24살에 불과했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이었다”고 부연했다.

박 간사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증여세를 냈나. 증여세 원천이 혹시 ‘엄마 찬스’였나”라며 “또 2016년 증여분은 증여세 납부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증여세를 내긴 한 건가. 세금을 냈다고 한들, 2016년은 세 아들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던 때인데, 무슨 돈으로 수천 만원을 냈나”라고 물었다.

민주당도 일부 의원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결단을 믿어줘야 한다고 논란을 애써 잠재우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 후보자의 끊이지 않는 논란을 두고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순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이 잘 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입장에선 국민의힘에서 즉각 제명하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 그쪽(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다. 이쪽(민주당)에서 더 잘해야 한다. 파이팅 하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김영배 與 의원, 전장연 ‘지하철 연착 시위’ 잠정중단 합의

“지방선거까지 시위 중단하기로
서울시민 겪는 불편 해결하고
장애인 목소리도 정치권서 논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만나 ‘출근길 지하철을 막는 연착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장연 시위 현장을 찾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과 만난 뒤 “전장연과 앞으로 지방선거 끝나는 6월초까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 분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할 정치권의 테이블에는 정작 여러분이 없다”며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한 번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혜화역으로 갔다. 서울시민들의 겪는 불편도 해결하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정치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며 “더이상 서울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만나 ‘출근길 지하철을 막는 연착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실

시민들끼리 싸우게 만들지 않겠다. 장애인 분들이 매일 지하철 역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전장연 분들에게선 지하철 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예산 관련 요구를 하기 위해 정치권에 항의하고 계시다”라며 “그러나 거기에 오세훈 시장은 없다. 장애인 권리 예산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아보고자 직장으로, 학교로 향하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지하철에 몸을 싣는, 여러분들의 고단한 이웃들이 있을 뿐”이라며 “아무 힘도 없고,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시발서를 쓰고 징계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서울시장은 관용차 뒷좌석에 앉아 편안히 청사로 향하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홍 기자

쿠팡, ‘성장대출’ 명목 고리대금업 운영

금리 18.9%·대출 끼워팔기 의혹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성장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갑질이자 실질적인 고리대금업을 운영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쿠팡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라며 “쿠팡이 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을 통해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명목 하에 상도덕을 어긴 갑질이자 실질적인 고리대금업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말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대부업 수준의 높은 금리인 18.9%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하는 수치”라며 “경쟁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에 금리가 5.9%~12.5% 수준이며, 시중은행과 연계한 보증부 대출은 3~4%대인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다면 실제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체일수록 10%대 후반의 고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그는 “끼워팔기 의혹도 있다.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의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정황도 포착됐다”며 “대출 약정 시에 판매자가 쿠팡으로부터 받을 정산대금의 질권을 설정하는 담보 구조로 돈을 못 갚으면 쿠팡이 줄 돈에서 바로 떼어가는 구조라서 쿠팡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수준의 고금리를 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본업 수익성 강화·외연확장 동시추진… 시장 판 바꾼다”

2026 보험, 위기와 기회

삼성화재

성장보다 수익·리스크 균형 우선
“글로벌 탭티어 보험사 지향”

캐노피우스 발판 북미사업 확장
AI, 본업 프로세스의 혁신 정의

삼성화재가 새해를 맞아 ‘사업 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통한 코어(Core) 강화’,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시장의 판 선도’를 밀어 부친다.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글로벌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AI로 대표되는 기술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환경 변화를 전제로 ‘빠르고 과감한 변화’를 통해 ‘세전의 5조원·기업가치 30조원’이란 2030년 비전 달성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코어 강화’… 수익 중심 밸류체인 재편

삼성화재의 ‘코어 강화’의 핵심은 성장보다 수익성과 리스크의 균형을 우선하는 재설계다. 장기보험은 상품·언더라이팅·유지관리 등 전 밸류체인을 수익성 기준으로 재정렬해 CSM(보험계



삼성화재 사옥과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

/삼성화재

약마진) 성장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자동차보험은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플랜과 마케팅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흑자 사업 구조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일반보험에서는 사이버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산업안전 강화 등 성장 영역에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해 수익성을 개선한다. 자산운용은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전제로 고수익 유망 섹터 투자 확대를 이익률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국내 보험시장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 1위를 공고히 하고,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탭티어 보험사를 향

해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성장보다 수익성·리스크의 균형을 먼저 세우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코어 재편’은 지난 2025년 손해를 부담이 다시 부각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삼성화재는 2025년 3분기(단일 분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익이 648억 원 적자로 전환했고, 1~3분기 누적 기준으로 341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전반에서도 보험료 조정 필요성이 거론되는 등 본업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 2026년 경영기조가 자동차를 포함한 전 부문 ‘수익성 중심’으로 내려온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 ‘룰메이커’, 캐노피우스·삼성Re-AI 내재화

2026년 삼성화재의 키워드는 ‘본업의 수익성 재정렬(코어)’과 ‘글로벌·AI를 통한 외연 확장(룰메이커)’ 동시 추진이다. 두 번째 축인 ‘룰메이커’는 글로벌 확장과 영업조직 혁신, AI 내재화를 묶어 “시장의 판을 바꿀 것”이라는 전략이다.

특히 글로벌 사업은 지분을 40%까지 확대한 로이즈 기반 손보사 ‘캐노피우스’를 베이스캠프로 삼아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 사업을 본격 확장할 방침이다. 캐노피우스는 작년 6월 삼성화재가 추가 21% 지분을 매입하기로 합의해 지분율이 40%로 확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보험 자회사 ‘삼성Re’는 사이버 등 유망시장 발굴과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지역에서 존재감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면 영업조직은 정기 조직개편을 통해 성장 기능과 마케팅 기능을 구분한 뒤, 영업 리더의 전문성을 융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영업 메카’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AI는 기술 도입이 아니라 ‘본업 프로세스 혁신’으로 정의됐다. 앞서 삼성화재는 OCR(문자 인식)과 생성형 AI를

결합한 ‘AI 의료심사’를 도입하고 진단서·검사결과지·수술기록지 등 의료문서를 자동 분석해 심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년엔 고객DX혁신실을 통해 체계적 로드맵을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적극 적용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끌어 올린다. 이미 진행 중인 AI 적용을 전사 확산 단계로 끌어 올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화재는 2025년 밸류업 계획에서 K-ICS(지급여력) 관리목표를 220% 수준으로, 지속가능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를 11~13%로 제시하고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 50% 확대 등을 내건 바 있다. 2026년 경영기조의 ‘리스크 관리하 고수익 투자’ 및 글로벌 확장 전략이 자본 여력·주주 가치와 어떻게 맞물려 실행될 지도 시장의 관련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삼성화재는 “글로벌 사업 확장, 대면 영업조직체계 혁신, AI 활용 확산을 통해 시장의 판을 바꾸어 리딩컴퍼니(Leading Company)로서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성공 DNA를 다시 일깨움으로써 승자의 조직문화(Winning Culture)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베네수엘라 마두로 압송… ‘금값’ 또 뛴다

뉴욕선물거래소, 온스당 금 선물
전일비 2.82% 오른 4451.50달러

美 트럼프, 쿠바 등 주변국 압박에
금값 추가상승, 최고가 경신 전망도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가 주춤했던 금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벌인 군사작전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이번 군사작전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콜롬비아·그린란드 등 주변국을 향한 추가 군사 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팽창주의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6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거래된 2월 인도물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당 4451.50달러다. 전 거래일보다 121.90달러(2.82%) 올랐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장기화로 금값이 급등한 작년 10월 20일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이다. 금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날 반등으로 사상 최고가에 약 100달러 가량 앞섰다.

이날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영향이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부정부패 의혹과 마약 거래 지원을 이날 군사작전의 이유로 들었다.

군사작전은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및 미국 압송으로 종료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권한 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미국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에 협력할 것이라고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전시 중인 골드바.

/뉴시스

예고했지만, 로드리게스는 5일(현지시간) 임시 대통령 취임식에서 “미국의 불법적 군사적 침략으로 대통령 부부가 피랍됐다”고 언급하는 등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력을 통한 베네수엘라 완전 점령 가능성은 우선 배제했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마약 밀매 중단, 석유 산업 재편 등 미국에 이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원유 수출 봉쇄, 마약 운반선 공격 등 압박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이번 군사작전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쿠바, 멕시코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군사 작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도 우리가 그린란드를 보유하길 원한다”라며 그린란드 확보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콜롬비아를 겨냥해 “(콜롬비아는) 코카인을 제조해서 미국에 보내는 병든 남자가 통치하고 있다.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팽창주의적 행보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 확대될 경우 금 가격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의 귀금속 전문 기업 헤라우스 메탈스의 알렉산더 쥘프 귀금속 트레이더는 “베네수엘라 사태는 분명하게 안전자산 수요를 다시 활성화시켰고, 이는 지정학적 불안정, 에너지 공급,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존 우려에 더해졌다”라며 “지정학적 긴장이 더 고조되거나 미 경제지표가 급리 인하 기대를 강화하면, 금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강태영 NH농협은행장, 中 북경 현장경영

현지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 점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중국 경제사절단 포럼 참석 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경지점을 찾아 중국 진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경영을 통해 중국 내 금융·경제 환경 변화와 북경지점의 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

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양국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협력과제 도출 및 사업기회 선점 등을 주문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해외시장”이라며 “NH농협은행은 현지 거점인 북경지점을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밀착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KB금융, 업계 첫 ‘사이버보안센터’ 출범

12개 계열사 공동대응 체계 확립

KB금융그룹이 금융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KB금융 관계자는 6일 “랜섬웨어, 외부 점점 해킹 등 금융권에서 직면한 사이버 보안 위협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도구를 통해 정교하고 지능화된 조직적 활동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최근 여러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보안 사고로 인해 금융기관의 보안 수준과 대응 역량에 대한 요구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KB금융은 지난해말 조직 개편을 통해 지주 정보보호부를 기존 IT부문에서 준법감시인 산하로 이동하고, 정보보호 조직 내에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 여의도전산센터 동관에 마련된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는 ▲12개 계열사의 외부 침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 확립 ▲그룹 공통 보안 프레임워크·표준 보안정책 수립 ▲AI·가상자산 등 신기술 보안 위협 연구·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업무를 수행한다.

그룹 사이버보안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레드팀(사이버보안팀)’과 상시 보안관제를 통해 외부 침해위험을 탐지·차단하는 방어 전문 조직 ‘블루팀(그룹 통합보안관제)’을 동시에 운영한다는 점이다.

레드팀은 각 계열사의 화이트해커 인력을 투입해 비대면 앱·웹에 대한 모의 해킹과 침투 테스트를 반복 수행하며 그룹 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KAI, 전투기 등 방산사업 호조… 매출·영업익 대폭 개선 전망

주요 개발사업들 마무리 단계
KF-21 등 인도·양산 본격화
업계, 매출 40% 이상 증가전망

한국항공우주(KAI)가 주요 기종 인도 확대와 양산 사업 본격화를 계기로 올해 실적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의 올해 예상 매출은 5조2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0.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 역시 4871억원으로 54.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비롯한 국내 양산 사업이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서며 중장기 외형 성장의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KF-21은 약 10년 6개월에 걸친 개발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초도 양산 물량 인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 시장을 둘러싼 기대감도 이어지



KF-21

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필리핀에서 KF-21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UAE와 체결한 150억달러(약 21조7000억원) 규모의 방산 협력 양해각서(MOU)가 KF-21 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필리핀 역시 군 현대화 계획인 ‘호라이즌 3(Horizon 3)’ 단계에 돌입하며 다목적 전투기(MRF) 사업에서 KF-21 20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완제기 수출과 함께 후속지원과 성능

개량 등 서비스 사업 확대도 실적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항공기는 40~50년에 달하는 긴 운용 수명을 갖는 만큼, 수출 이후에도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인도네시아 KT-1 기체 수명 연장 사업과 필리핀 FA-50 전투기 성능개량·후속군수지원(PBL) 사업이 추진되며 서비스 부문 매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FA-50 계열은 6개국에 약 150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

으며, KT-1 역시 다수 국가에서 운용 중이다.

수주잔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KAI의 수주잔고는 2021년 이전 18조원 내외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26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개발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과거처럼 실적에 부담을 주던 변수들은 대부분 정리된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양산과 인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가 실적 흐름을 좌우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한편 6개월째 공백 상태인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전후로 신임 대표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 사업 발굴과 대외 협력 측면에서 리더십 공백이 해소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의 속도와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 북6 시리즈 공개

삼성전자가 5일(현지시간) 새로운 ‘갤럭시 북6 시리즈(사진)’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압도적인 성능과 휴대성에 더해 사운드와 그래픽,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갤럭시 북6시리즈는 기본 모델인 ‘갤럭시 북6’를 비롯해 ‘갤럭시 북6 프로’와 ‘갤럭시 북6 울트라’ 총 3종으로 구성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3월 말까지 진행하는 ‘갤럭시 AI 아카데미’ 프로모션과 연계한 신제품 구매 혜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HD현대일렉트릭, 수주목표 대폭 상향… “42억弗 달성”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증가 전망
美 등 시장 확장… 사업 기회 확대

HD현대일렉트릭이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올해 수주와 매출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6일 올해 수주 및 매출 등 영업실적 전망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서 HD현대일렉트릭은 2026년 수주 목표를 42억22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매출 목표를 4조35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 목표 대비 각각 10.5%, 11.8% 증가한 수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동화 중심의 친환경·고효율 전환 가속화,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 확대 등으로



HD현대일렉트릭 울산 사업장 전경.

/HD현대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면서 전력기기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HD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차단기, 회전기, 배전기 등 전 사업 영역 전반에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HD현대일렉트릭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생산 거점 신증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조기 전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과 미국 변압기 공장 증설을 적기에 완료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법 고도화와 숙련 기술 인력의 사전 양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병행한다. 상반기 본격 가동을 앞둔 청주 배전캠퍼스 역시 자동화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와 고도화를 통해 생산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장 확장과 사업 다변화 전략도 강화한다. 배전 분야에서는 신제품 라인업 확대와 현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국내외 판매 채널을 다변화한다. 회전기 부문에서는 선박용 축발전기와 대용량 드라이브(VFD), 10MW급 대형전동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안

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HD현대일렉트릭은 이날 미국 내 최대 송전망 운영 전력회사와 765kV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주 금액은 986억원이며 제품은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765kV 초고압 변압기는 미국 내 최고 전압 사양으로 고난도 설계·제작 역량과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가 수주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계약은 미국에서도 제한된 소수의 유틸리티 기업만이 운영하는 초고압 ‘기간(backbone)’ 송전망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례로, 향후 관련 프로젝트 추가 수주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LG엔솔, 200억 규모 ESS 사업 수주

한전 ‘선산·소룡 프로젝트’ 배터리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하는 계통 안정화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2차 사업 가운데 선산·소룡 프로젝트에 약 200억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삼안엔지니어링과 대명에너지는 모두 ESS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선산 프로젝트는 삼안엔지니어링이, 소룡 프로젝트는 대명에너지가 각각 수행한다.

한전 계통안정화 ESS 사업은 ▲송전망 병목 ▲주파수 불안정 ▲출력 변동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전력망 안정화 프로젝트다. 변전소 단위로 고출력 ESS를 구축해 계통의 주파수와 전

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ESS를 활용한 계통 안정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2차 계통 안정화 ESS 사업은 총 700억원 규모로, 소룡·논공·나주·선산·신영주 등 5개 변전소에 총 300MW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선산과 소룡 부문이 우선 발주됐으며 각 프로젝트 규모는 선산(경북 구미) 56MW·51MWh, 소룡(전북 군산) 56MW·51MWh로 구성된다. 두 사업 모두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계통 안정화 ESS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면서 이번 2차 사업에서도 연이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SK온·SK이노, VIB 기반 ESS 사업 확대

〈바나돔이온배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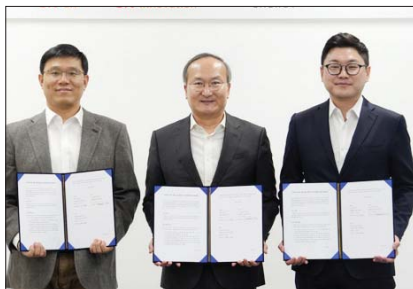
스탠다드에너지 업무협약 체결

SK온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바나돔이온배터리(VIB)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문기업 스탠다드에너지와 손잡고 ESS 사업 확대에 나선다.

SK온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일 대전광역시 스탠다드에너지 본사에서 VIB ESS 전문기업 스탠다드에너지와 ‘이차전지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단주기 ESS에 적합한 고안전성·고출력 성능의 ESS용 VIB의 성능 고도화와 사업화 협력이 핵심이다. VIB는 물을 주성분으로 한 전해액을 사용해 화재와 폭발 위험이 거의 없고, 출력 특성이 뛰어나 단주기 ESS에 적합한 배터리로 평가된다.

세 회사는 각자의 핵심 기술 역량을



이석희 SK온 사장(가운데), 김필석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왼쪽)과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가 5일 대전 대덕구 스탠다드에너지 본사에서 ‘이차전지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결합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SK온은 배터리 대량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스탠다드에너지와 함께 원소재 조달부터 소재·셀·배터리관리시스템(BMS)까지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셀 대면적화 설계 등 차별화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원관희 기자

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건조계약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1조4993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6일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주 지역 선사와 20만㎥급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 선박은 길이 294.8m, 너비 48.9m, 높이 26.7m 규모로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은 일반적인 17만4000㎥급 LNG 운반선보다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어 단위당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고효율 축발전기와 LNG 재액화 시스템 등 최신 사양을 탑재해 운항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유혜은 기자

벤처투자, 세제·의무 전면완화 민간자금 유입·회수환경 개선

중기부, 벤처투자제도 개편 발표
7월부터 투자 의무 이행기간 3~5년
민간 벤처모펀드·개인조합 제도 손질
모태펀드 존속 연장, 하반기 절차 마련

올해부터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됐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를 6일 발표했다.

우선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투자자 필요했지만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또 지난해 8월초부터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이에 더해 7월부터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할 계획이다.

역시 7월부터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높인다.

이외에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최대 49%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7월부터는 직접 출자 뿐만 아니라 '간접 출자'까지 포함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는 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

2035년까지로 규정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연장을 위한 절차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도 더욱 강화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매일오네’로 개인택배 시장 키운다

CJ대한통운 오네 앱 전면 개편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 기반의 '매일오네'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인택배 시장을 더욱 공략한다.

CJ대한통운은 개인 고객의 택배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택배 접수 편의성을 강화하고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오네(O-NE) 어플리케이션(앱)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오네 앱은 택배를 받는 고객을 위한 배송 조회 기능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택배 기사가 집 앞까지 찾아오는 택배 방문 접수 ▲고객 근거리에 위치한 무인 보관함 위치 조회와 예약 안내 등 '접수 고객 중심' 기능을 메인 페이지에 전면 배치했다. 이와 함께 배송조회 역시 메인 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UI)을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배송비 결제도 한층 편리해졌다. 신용카드와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탈을 활용한 간편결제 기능을 앱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추가해 기존 배송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이체를 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CJ대한통운이 개인택배 서비스를 강화한 배경에는 택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커머스(B2C)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개인택배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구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지난해 9월 당근마켓과 손잡고 중고거래 이용자를 위한 '바로구매'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전통시장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을 가정으로 배송해 주는 등 개인택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 윤재승 오네(O-NE) 본 부장은 "전국 권역의 주7일 배송 서비스를 비롯해 차별화된 배송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통시장이나 농어촌 등 전국의 모든 고객들이 편리한 생활물류 인프라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웅진그룹, 교육·산업 IT 기술력 선보여

CES 참가해 AI 에듀테크 등 공개

웅진그룹이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교육과 IT를 아우르는 기술 경쟁력을 뽐낸다.

웅진그룹은 오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교육 및 렌탈·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노스홀에 마련된 웅진 통합 부스는 웅진씽크빅의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 제품과 웅진IT의 렌탈·모빌리티 산업용 디지털 솔루션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웅진씽크빅은 올해 CES에서 각각 혁신상을 받은 독서 플랫폼 '북스토리'와 영어 말하기 서비스 '딩고시티'로 AI를 활용한 독서·언어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 책 속 정보를 증강현실(AR)로 구현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독서 솔루션 'AR피디아', 학습자 수준에 맞춘 TOPIK(한국어능력시험) 특화 서비스 '씽크빅 토픽'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CES 2026'에 마련한 웅진씽크빅의 부스 이미지.

웅진IT는 렌탈·구독 비즈니스와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WRMS(Woongjin Rental Management System)'와 'WDMS(Woongjin Digital Mobility Solution)'를 소개한다. WRMS는 계약·수납·고객관리 등 렌탈 사업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 WDMS는 주문·인증·인도·정비처럼 딜러사의 필수 업무를 돕는 통합 서비스다. 웅진IT는 업종과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듈형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세아윈드, '현지 모노파일' 유럽 공급망 확장

AR7 앞두고 英 해상풍력 수주전 로컬 콘텐츠 강화 정책과 맞물려
북해 프로젝트 추가 수주 기대

유럽 해상풍력 시장이 정책·지역 중심 공급망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현지 생산을 앞세워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섰다. 영국 해상풍력 보조금 입찰(AR7) 발표를 앞두고 세아윈드가 구축한 현지 모노파일 공장이 한국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의 새로운 진입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AR7 결과는 늦어도 2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AR7은 영국 정부의 제7차 차액계약(CfD) 입찰로,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전력 가격 변동에 따른 보조금 지급·초과이익 환수 구조를 적용한다. 지멘스에너지 영국·아일랜드 담당 부사장은 AR7에서 최소 6GW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AR3(2019년·5.46GW)를 웃돈다. 업계는 AR7 낙찰 이후 모노파일 등 하부구조물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해상풍력 성장 프로그램(OWGP) 관계자들은 지난달 영국 티사이드의 세아윈드 모노파일 공장을 찾아 설비·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OWGP는 대형 모노파일 연속 생산(일관 공정) 체계와 전용 장비 구축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현지 프로젝트 구역.

/세아제강지주

세아윈드는 영국 내 해상풍력용 모노파일 현지 생산이 가능한 유일 업체로, 수주 레퍼런스도 확보한 상태다. '노퍽 벵가드' (업계 추정 1조5000억원) 납품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진행되며, 매출은 2026~2027년에 걸쳐 순차 인식될 전망이다.

코트라는 영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해상풍력 시장이며, 누적 설비가 약 16GW로 전체 전력의 17% 이상을 차지한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2030년 50GW + 목표를 제시했다. EU도 회원국들이 해상풍력 설비를 2030년 86~89GW, 2040년 259~261GW, 2050년 356~366GW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시장조사 컨설팅 기업 베어링가는 영국의 터빈·하부구조물·항만·케이블·설치선박 등 해상풍력 공급망 전반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영국 정부는 해상풍력을 일자리·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지 공급망(로컬 콘텐츠)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지난해 4월 3억 파운드 추가 투자에 이어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부(DESNZ)도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총 10억 파운드 투자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세아윈드는 이 같은 현지화 기조에 맞춰 영국 정부와 MOU를 맺고 현지 모노파일 생산 거점을 구축했으며, 북해 프로젝트 확대에 따라 추가 수주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한국엔컴퍼니, 실전형 AI 인재 육성 나서

KAIST·UNIST·POSTECH 주최
AI·데이터 경진대회 공식 후원

한국엔컴퍼니그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포항공과대학교(POSTECH)가 주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사이언스 경진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국내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약 280명의 학생이 지원해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과정은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실제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제했다. 참가자들은 유한요소법(FEM)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와 설계 데이터를 활용해 타이어 불량률을 예측하고, 비용을 고려한 시험 생산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했다.

평가 결과, 대상은 RPM팀이 수상해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RPM팀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고도화된 AI 예측 모델을 구현했으며,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실제 산업 데이터를 다뤄볼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미래 디지털 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네이버플러스, 쇼핑 넘어 일상으로 각종 파트너 있는 연결허브로 변신

쏘카, 익스박스, 컬리, 우버 등 일상 구독형 멤버십으로 영역 확대 장보기, 배송, 럭셔리 소비 혜택 강화 서비스 소유 아닌 연합형 모델로 플랫폼 체류시간 늘리는 핵심장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더 이상 쇼핑 부가 서비스에 머물지 않는다. 이동과 콘텐츠, 식료품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올인원 멤버십’으로 빠르게 확장되며 네이버 커머스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네이버는 6일 쏘카를 통한 이동 혜택,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게임패스 제공, 컬리 장보기 할인, 우버 연계 혜택, 스포티파이 음원 콘텐츠, 롯데마트 오프라인 유통까지 멤버십 혜택을 넓혔다고 전했다. 쇼핑 중심 멤버십에서 일상 구독형 멤버십으로 영역을 확대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네이버가 직접 모든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는 방식이다.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외부 사업자와 손잡고 멤버십이라는 하나의 접점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하나의 멤버십으로 이동과 소비, 여가와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다.

이 같은 전략은 실제 서비스 운영과 커머스 혜택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새해를 맞아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빠른 배송’과 ‘신선식품 장보기’ 혜택을 전면 확대 세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모바일 앱에서 N배송, 컬리N마트, 하이엔드 등 주요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멤버십 이용자에게 매일 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갈무리

공한다.

배송 영역에서는 지난해 2월 리브랜딩한 ‘N배송’을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했다. N배송 적용 상품을 1만원 이상 주문하면 20%,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오늘배송, 새벽배송, 내일배송 등으로 배송 옵션을 세분화해 당일 또는 익일 수령 수요를 흡수한다. 2025년 12월 기준 N배송 상품 거래액은 전년 대비 76%, 주문 건수는 85% 증가했다.

신선식품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멤버십 이용자는 1만원 이상 주문 시 20%,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컬리N마트 거래액은 전월 대비 2배 증가했다.

가전과 가구 등 설치가 필요한 상품군에서는 배송 희망일을 지정할 수 있는 ‘N희망일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상품 주문 시 최대 5만원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학기 수요를 겨냥한 가구 기획전도 병행한다.

럭셔리 소비 영역에서도 멤버십 활용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명품 브

랜드 공식 스토어를 모은 하이엔드 서비스에서는 전용 10% 할인 쿠폰을 통해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하이엔드 입점 브랜드 수는 오픈 초기 대비 약 20% 늘었고,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성장했다.

네이버 내부에서는 멤버십을 단순 할인 수단인 아닌 장기 체류 기반으로 본다. 쇼핑 적립을 넘어 네이버페이 결제와 콘텐츠 이용, 오프라인 소비까지 연결되며 이용자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일각에서는 멤버십 규모 확대에 따른 플랫폼 영향력 우려도 제기한다. 다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자회사 중심 폐쇄형 구조가 아닌 외부 파트너와의 연합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존 플랫폼 독점 논란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개별 서비스를 키우기보다 생활 전반을 하나의 이용 흐름으로 묶는 것이다. 멤버십이 커질수록 네이버는 플랫폼 운영자가 아니라 연결 허브에 가까워진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HNIX, AX·클라우드 전략적 협력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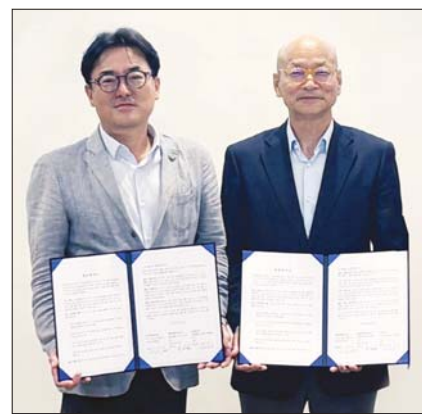
네이버클라우드 공식 파트너사 등록

HNIX(에이치엔아이엑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공식 파트너사로 등록하고, 인공지능 전환(AI) 및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AX 중심의 장기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HD한국조선해양, HDC현대산업개발, 현대비엔지스틸 등 HNIX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AI 기반의 맞춤형 자동화·예측 분석 솔루션을 우선 제공하는 동시에, 이같은 솔루션을 시스템·패키지화해 국내 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각 산업군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안정성과 확장성을 갖춘 클라우드 인프라 및 AI 플랫폼을 제공하고, HNIX는 풍부한 산업별 업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AX 기획, AI 솔루션 적용, 레거시 시스템 연계, 현장 밀착형 구축·운영 등을 담당한다.

조선·자동차·기계 등 ‘조립·생산 산업’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AI 설계 자동화, 품질 지능화, 생산 의사결정 고도화 등을, 철강·화학·정유 등 ‘공정·연속 산업’에서는 AI 예지보전, 품질 예측, 에너지·설비 운영 최적화 등을 각각 핵심



차동원 HNIX 대표(오른쪽)와 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 전무가 제조 분야 AI 및 클라우드 사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NIX

축으로 공동 사업을 전개한다.

양사는 이같은 산업별·기업별 AX 모델을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하고 PoC(개념검증)·상업화·기업 그룹사 확대 적용 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사는 기존 온프레미스(사내 구축형) 중심의 전산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AI 서비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HNIX는 내년 조직개편에서 정득영 전무를 총괄 책임자로 하는 전사 AX추진실을 신설해 AX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티빙, 뉴스·예능 등 MBC 콘텐츠 확대

지상파 3사 뉴스 라이브 모두 제공

티빙이 MBC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하며 뉴스·시사부터 예능, 드라마까지 폭넓은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티빙은 지난 5일 ‘MBC 뉴스&시사’ 스페셜관을 새롭게 열었다. 스페셜관에서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의 실시간 라이브 시청이 가능하며, ‘PD수첩’, ‘스트레이트’, ‘100분 토론’ 등 주요 시사 프로그램을 VOD로 상시 제공한다.

이번 개편으로 티빙은 지상파 3사 뉴스 라이브를 모두 제공하는 OTT 플랫폼이 됐다. 이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뉴스를 시청할 수 있다.

예능 콘텐츠도 확대됐다. 티빙은 1일부터 MBC 예능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해 ‘극한84’, ‘신인감독 김연경’, ‘전지적 참견시점’을 공개했다. 다음 주부터는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2’, ‘심야괴담회 시즌4~5’, ‘태계일주 1~3’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드라마 라인업도 강화된다. 이달 2일 공개된 ‘판사 이한영’을 비롯해 최신 일일 드라마 ‘첫 번째 남자’를 티빙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웃소매 붉은 끝동’, ‘하얀거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등 기존 인기작과 ‘하이킥! 시리즈도 차례로 공개된다. /김서현 기자

SK AX, ‘생성형 AI 활용 자격증’ 공신력 인정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사업주 자격 AI로 시험 응시부터 채점·평가까지 실제 업무 수행능력 중심 평가 구조

SK AX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사업주 자격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올 초부터 SK그룹 구성원 약 38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인증 제도와 플랫폼이 업무 생산성 제고 효과와 평가 체계의 객관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실무자가 생성형 AI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검증하는 제도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SK AX는 일부 기업들이 해당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는 등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는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직무 자격 제도에 대해 평가 체계의 완성도와 운영 성과 등을 종합 심사해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SK AX의 인증 플랫폼은 시험 응시부



AI 부트캠프를 AI로 생성한 이미지.

/SK AX

터 채점·평가까지 전 과정을 AI로 운영하고,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플랫폼은 단순한 이론 습득 여부가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험은 사업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조사, 인사 전략 등 직무 상황을 바탕으로 설계됐으며, 보고서·스프레드시트·소스코드· 다이어그램 등 협업 결과물을 통해 평가가 이뤄진다.

인증 과정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AI 리더러시’ 단계에서는 생성형 AI의 기본 원리 이해와 프롬프트 활용, 일상 업무 적용 능력을 검증한다. 이어지는 ‘AI 부트캠프’ 단계에서는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시스템이나 AI 기능이 적용된 웹·앱 개발 등 실습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활용 역량을 평가한다.

모든 과정은 교육부터 실습, 평가, 채점까지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돼 대규모 조직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 숏폼 공식 크리에이터 공개 모집

창작자 발굴·성장 지원

카카오는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카톡 숏폼 챌린지’를 열고, 카카오톡 숏폼에서 활동할 공식 크리에이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창작자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일상·브이로그·도전기 등 장르와 카테고리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카카오톡 채널을 보유한 이용자는 물론, 향후 채널을 활용해 활동을 희망하는 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선발한 크리에이터는 100일간 도전·성장·완주 등 3단계 미션을 수행한다. 카카오는 단계별로 콘텐

츠 제작과 기획, 채널 운영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구간별 기본 리워드를 지급하고, 매월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구간별 어워즈를 운영한다. 공식 활동 종료 이후에는 결산 어워즈와 스페셜 어워즈를 통해 우수 참가자를 시상한다.

카카오는 참여 크리에이터에게 카카오톡 숏폼 내 노출 등 활동 지원을 제공한다. 우수 크리에이터에게는 카카오톡 비즈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해 수익화 경험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톡 숏폼 챌린지는 카카오톡 PC 또는 모바일 앱 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카카오톡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크리에이터 지원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14만전자·70만닉스’ 도달

연초부터 지속 상승… 4500선 돌파 정책 수혜 등 달라진 투자환경 영향 증권업계, 올해 코스피 전망치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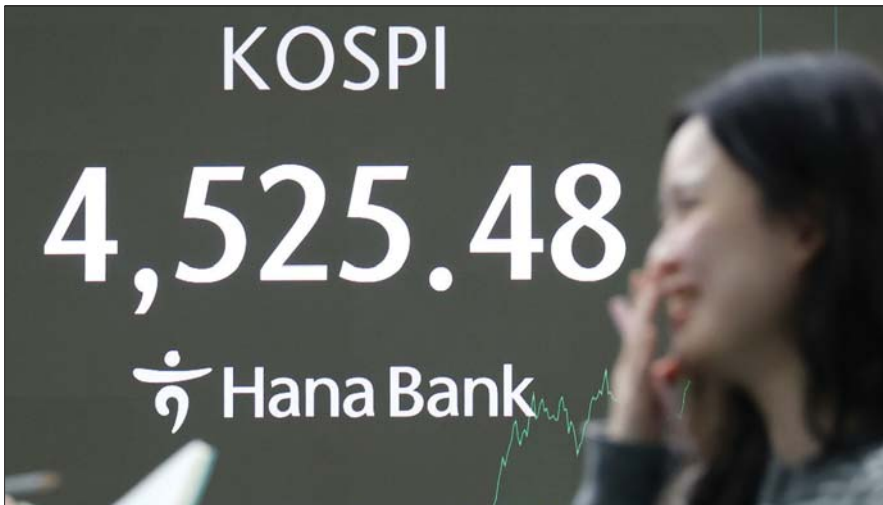
“장담 컨대, 상반기 내에 코스피 5000 갑니다.”

6일 코스피가 ‘인공지능(AI)’발 이익 모멘텀과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으로 사상 첫 4500선을 넘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올해 들어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 1.52% 오른 4525.48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4만전자’(장중 14만 200원)·‘70만닉스’(종가 72만 6000원)에 도달했다.

AI 거품 우려와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낙관론자들의 어깨엔 잔뜩 힘이 들어갔다.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5000대로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꿈의 ‘6000선’을 제시한 곳도 있다.

◆자금 블랙홀 ‘K증시’

시장 전문가들은 2022년과 달리 올해는 ‘돈’이 풀린 환경이 다르다고 말한다. 치솟는 소비자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기



6일 코스피가 4525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감 했다.

/ 손진영기자 son@

위해 한국은행은 2022년 기준금리를 연 3.25%까지 올렸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2.50%까지 떨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7월에 25bp(1bp=0.01%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 전망까지 했다. 살아난 경제불씨를 타오르게 할 환경을 만들것이라 전망이다. 시중금리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2년 말까지만 해도 3.5%~3.7%대에서 움직였으나 지금은 2.9%대로 내려갔다.

얼어붙은 부동산장에서 증시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5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0조원(89조 1304억원)으로 불었다. 전례 없는 강세장에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도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신용거래용 자 잔고는 27조 622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 정부가 주주환원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구조적 리레이팅 의지를 보인점도 외국인을 불러 모은다. 이 정부는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걸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을 개정했다. 자사주 취득 후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달 국회 처리가 유력하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업황 전

망도 장밋빛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컴퓨터 성능을 메모리가 결정한다는 ‘메모리 센트릭’ 이론이 현실화했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축이 학습 단계를 넘어 추론 영역으로 진화하며 더 많은 용량, 더 빠른 속도의 메모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AI 추론은 이미 학습된 내용을 불러와 실시간으로 답변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AI 학습의 3배 수준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2250억 달러(약 325조 1475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올해 4200억 달러(약 607조 26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6000, 꿈 아니다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올해 코스피 지수상단이 6000포인트까지 추가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스피 순이익이 현 추정치 대비 30% 상향된 427조원으로 확대되고, 주가수익비율(PER) 13.7배가 적용되는 최상위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분석이다. 이 증권사 김용구 연구원은 “반도체 ‘원투펀치’ 실적 눈높이 상향 조정이 이번 코스피 지수 전망 변화의 직접적인

이유”라며 “지난해 9월 말 46조 2000억원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달 5일 기준 90조 8000억원까지 급증했고,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47조 8000억원에서 80조 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를 올렸다. 키움은 기존 3500~4500 포인트에서 3900~5200 포인트로 예상 범위를 상향하며 외국인 매수세와 기업 이익 개선 흐름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2개월 사이 2026년 코스피 밴드를 제시한 8개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하단을 3500~4000, 상단을 4500~5500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지수 수준은 일부 증권사가 제시한 연간 상단에 이미 근접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불안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 또한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이 과거보다 많이 상승한 점, 저금리로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급증한 점 등이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꼽힌다.

/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학개미, SOXL 등 레버리지 상품 중심 매수

해외주식 Click

반도체 주축 빅테크 종목 베틱 단기채·ETF 통해 변동성 대비

지난해 연말 주춤했던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수세가 새해 들어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반도체를 주축으로 빅테크 종목에 베틱하는 동시에, 단기채와 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함께 담으며 변동성에 대비한 포지션 관리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SOXL)로 약 2억 5497만 달러를 사들였다. 미국 증시가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대표 디램(D

RAM) 업체인 마이크론은 급등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는 지속되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여진다.

외환당국이 고환율 주범으로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를 지목하며 경계를 당부하면서 투심이 잦아든 모습이었지만, 새해 들어 되돌아 온 모습이다. 서학개미들은 지난달 25일, 30일, 31일 각각 8456만 달러, 9165만 달러, 1억 4543만 달러를 순매도했지만 연초 들어 다시 압도적인 결제액을 보이고 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1일에만 5억 436만 달러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을 기록했으며, 이달 들어 총 9억 6296만 달러를 사들였다.

다만 이러한 단기적 흐름은 ‘연말 절세 타이밍’이 맞물렸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결제가 완료된 매도 주문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연말에는 세금 부담을 고려한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서학개미들은 올해도 공격적인 투자태도를 유지했다. SOXL뿐만 아니라 2번째로 많이 담은 테슬라(8862만 달러) 역시 주가 상승에 2배로 베틱하는 레버리지 상품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불 2X 셰어즈’ ETF(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4132만 달러)를 함께 담았다.

지난달 뉴욕 증시가 2025년 막바지 조정 흐름을 보였던 만큼 개별 종목 선호도 올라갔다. 지난해 순매수 1위였던 알파벳(2997만 달러), 마이크론(2881만 달러), 아이온큐(1951만 달러), 엔비디아(1851만 달러) 등이 모두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표적 미국 단기채로 꼽히는 ‘아이셰어즈 0~3개월 국채’ ETF(ISHARES 0-3 MONTH TREASURY BOND ETF·3379만 달러)와 주요 지수들과 연동되는 ETF들을 순매수하며 미국 증시 변동성을 전제로 한 포지션 관리 전략도 병행했다.

/ 신하은 기자



두나무, ‘희망2026 나눔캠페인’ 16BTC 기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5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16BTC(비트코인·한화 약 21억)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오경석 두나무 대표와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두나무

삼성증권,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식’ 진행

정확한 상품 설명 등 7가지 약속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전사적 관심을 제고하고 현장의 실천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6년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서약식은 ▲개정 소비자보호헌장과 슬로건 안내 ▲소비자보호헌장 숙독 및 서명 ▲제조-판매-사후관리 부서장 대표 선서 ▲경영진 서명 순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참석 임원 및 부서장 전원은 ‘소비자보호헌장’에 직접 서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으며, 제조-판매-사후관리 각 부문을 대표하는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하며 현장의 책임의지를 다졌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WM부부장, 채널솔루션실장, 디지털&연금부부장 총

5인의 경영진이 현장에 서명하며 전사적인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이날 서명한 현장에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법규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정확한 상품 설명’, ‘고령자·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리한 환경 조성’,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시스템 운영’, ‘금융소비자의 목소리 적극 반영’, ‘금융소비자 대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7가지 핵심 약속이 담겼다.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이날 서약식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명하고 선서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모든 업무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며 “고객의 신뢰가 없는 삼성증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각오로 모든 업무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하은 기자

최운열 “회계개혁, 국가적 과제… 반드시 완수해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회 ‘회계인 신년인사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 환경 조성”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6년 회계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계인 신년인사회는 회계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연례



행사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 소개, 최운열 회장(사진)의 환영사, 주요 내빈 신년 인사말씀, 2026년 테마 소개, 한국공인회계사회 슬로건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찬환담에서는 참석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최운열 회장은 신년인사회 환영사에

행사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 소개, 최운열 회장(사진)의 환영사, 주요 내빈 신년 인사말씀, 2026년 테마 소개, 한국공인회계사회 슬로건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찬환담에서는 참석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허정윤 기자 zelkova@

서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이며, 회계개혁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우리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회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깎 래 아 깎 수 없 는 무 적 의 치 킨 버 거

통다리
크리스파
치킨버거



침착맨'S PICK

침착맨

파이어핫

그릭랜치



LOTTERIA™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통 수산업, AI첨단산업으로 재편”

해양수산부 언론설명회

2030년까지 1675억 투입 예정
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정부가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전남 지역에 조성하는 등 국내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추진한다. 또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김’ 외 다른 수출 품목 발굴에도 나선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5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동과 어획량 감소에 대응해 전통수산업을 혁신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전남 고흥에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스마트 아쿠아 팜 테스트베드(시험대) 조성 등에 2030년까지 1675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김성범 해수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5일 오후 부산 동구 소재 해수부 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있다. /해수부

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전통수산업을 AI(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식업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해 먼바다나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온

도 변화가 작은 해역을 새롭게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참치, 굴 등 유망 수출품목들도 제2, 제3의 김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 신기록을 경신(11억 달러)한 김 수출은 오는 2030년까지 15억

달러대 진입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급을 안정화하고 마른김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품질 제고에 나선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를 위해 해운기업에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허용,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소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김 차관은 “항만 내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후속조치에

따라 양국이 공동으로 피지컬 AI 항만 기술을 개발하고, 각국의 대표 항만에서 실증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올해 여름 30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하고,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빙과 쇄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선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한반도 동남권에 해양관련 기업·공공기관·해사법원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멈췄던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재가동

산업부, 교역·투자·공급망 아우르는 장관급 정례 소통채널 구축하고
매년 1회 이상 상호 방문·개최

15년간 중단됐던 한중 장관급 투자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된다. 중국의 새 만금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에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2002년 출범해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던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해 고도화한 것이다.

기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분산돼 있던 협의 채널을 하나로 묶어, 교역·투자·공급망은 물론 제3국 및 다자협력까지 포



김정관(왼쪽부터)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오유경 식약처장과 쑨메이진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괄하는 정부 간 상시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나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양·다자 회의 계기에 수시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왔으나, 상시적이고 정례화된 협의 구조는 15년간 공백 상태였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목표로 중국 측과 일정과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날 함께 체결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서도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협력 확대에 합의했

다. 앞서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은 새만금을, 중국은 장쑤성 옌청, 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 등 4개 지역을 산업단지 협력 거점으로 지정해 양국의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왔다.

다만 지금까지 새만금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산단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MOU에 따라 올해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에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남부발전, ‘에너지 수급 점검반’ 운영

베네수엘라 사태 장기화 대비
안전·보안 점검반 함께 구성

한국남부발전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발전용 연료 수급을 위한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6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응해 전날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가동했다.

남부발전은 사태 발생 직후 유엔·탄·LNG·유류 등 핵심 연료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수급점검반’과 함께 해외사업장 운영 및 정보보안을 점검하는 ‘안전·보안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발전용 연료 수급 상황은 물론 해외사업장 안전과 정보보안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태길 남부발전 자원전략처장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개연성이 있다”며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 대처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수급 불안정 대비 기후변화대응처 신설

전담 사업조직 전문성 강화
먹거리 공급체계 안정성 도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기후 위기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내부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aT는 기존 ‘기후변화대응부’를 정원 28명 규모의 ‘기후변화대응처’로 격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상과 급격한 기후 변화가 농산물 수급 불균형과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전담 사업조직의 전문성 및 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 먹거리 공급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도모한다.

aT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품종 준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재배 ▲여름배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여름배추 ‘하리듀’의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aT

추 김치가공 실증 ▲CA(저장공간의 공기조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 저장고를 활용한 봄배추 장기 저장 등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기후변화대응처 출범으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수급사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며 “연구부터 생산, 유통과 소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화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촌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확대할 것”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가 위기 극복 위해 설비 구축 지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촌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보급형 스마트팜의 농가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5일 충남 논산 강경농협에서 열린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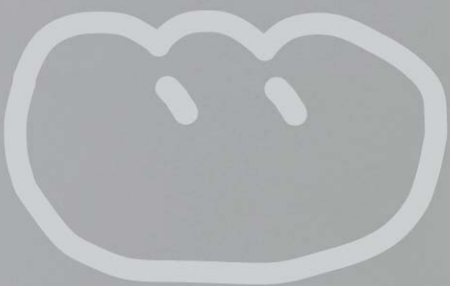
협금융-농협경제 보급형 스마트팜 협력사업’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기후 변화와 농촌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스마트팜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가능케 하는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확대를 통해 한국



강호동(오른쪽) 농협중앙회장이 충남 논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생육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농협

형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경북도, 3000억 투입… 지역-대학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5년간 RISE에 총 1.5조 투자
올해 경북형 글로벌대학과
메가버스티 연합대학 추진

경북도가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에 3000억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의 RISE는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체계로 지자체가 주도해 대학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연계, 지역 정주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으로 올해 '경북형 글로벌대학'과 '메가버스티(MEGAiversity) 연합대학'을 추진한다.

'경북형 글로벌대학'은 정부의 '글로벌대학30'에는 아쉽게 탈락했으나 미



경북도청.

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혁신의 지를 가진 대학들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은 AI 인재 양성 and 미래 전략산업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간 90억원이 투입되는 '메가버스티 연합대학'은 도내 대학이 함께 자원을 공유하며 상생하는 연합모델로, 각 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집중 지원한다.

이 가운데 '경북형 모빌리티혁신대학(MII)'(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은 경북 산업체 수요를 반영해 미래차 혁신부품, 친환경 배터리 등 학교별 특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신 한국인 양성 1000 대학'(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은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 생활, 취·창업 등을 지원해 글로벌 인재로 육

성한다.

경북도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된 4개교(포항공대,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에 대해선 대학과의 소통과 협력을 늘리고, 추진 상황을 점검해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들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SS),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대학창업교육체제구축(SCOUT) 등 대학별 특화 분야와 강점을 중심으로 취·창업 지원, 기술이전, 산학연협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 RISE는 단순한 대학지원 예산 확대가 아니라 대학과 지역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실질적 전환점"이라며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와 과감한 혁신으로 인재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경북, 대학이 지역을 움직이는 경북형 지역 혁신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산시

65세 이상 의료비 부담완화

경산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의과 진료비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약 5만7천여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료비 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약분업 지역인 보건소와 하양·진량·입량·와촌·자인보건지소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경산(경북)=김준한 기자

경남도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

경남도가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위해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만명으로,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배정됐다.

경남도는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차에 누적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함양군

동계전지훈련 39개팀 유치

함양군이 올해 동계 전지 훈련 시즌을 맞아 축구와 테니스 등 전국 39개 팀을 유치하며 '전지 훈련의 메카'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축구팀 26개와 함양을 찾는다. 전국 중학교 24개 팀과 대학교 2개 팀 소속 선수 및 관계자 1100여 명이 37일간 함양에서 동계 훈련을 진행한다.

테니스 분야에서도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고등학교 8개 팀과 중학교 5개 팀 등 13개 팀 90여 명의 선수들이 훈련 캠프를 운영한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하동군

'하동형 육아수당' 본격 시행

하동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하동형 육아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세 미만 아동에게 출산 축하금 200만원을 1회 지급하고,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당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수혜자의 지출 선택권도 보장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위라벨 주간 기념식 및 우수 기업 선정 모습.

/부산시

“위라벨 ‘전국 2위’ 부산으로 오세요”

고용부 ‘일·생활균형지수’ 평가
특·광역시 1위… 일 영역 대폭 개선

부산이 고용노동부의 '2024년 일·생활균형지수' 평가에서 전국 2위, 특·광역시 가운데 1위에 올라 위라벨 도시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진행한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가점 등 5개 영역 25개 지표를 분석했다. 부산은 73점을 기록하며 전남에 이어 2위, 서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23년 65.3점에서 7.7점 상승

하며 전년 대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부산은 2017년 39.5점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약진의 원동력은 '일' 영역에서의 대폭 개선이었다. 부산 기업들의 초과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휴가 사용 증가 등에 힘입어 이 부문 순위가 전년 15위에서 1위로 급상승했다.

부산시는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담 조직과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소규모 기업 대상 집중 홍보, 기업 맞춤형 컨설팅, 위라벨 직장 교육, 우수 기업 선정 등을 진행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K-문화 글로벌 도약 기반 다져

핵심사업 국비 1000억 확보

전라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K-노벨문학센터 건립,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등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 기반이 될 K-문화 핵심 사업 국비 100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국비 확보는 K-컬처 300조 시대에 발맞춰 문화창조산업에 선제 대응하고, 도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향유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남도 문화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체계적으로 발현할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은 ▲K-노벨문학센터 건

립 지원 1억 5000만 원(총사업비 450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29억원(총 185억원) ▲구례 화엄사 구층암 전통문화 체험시설 건립 2억원(총 32억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298억원(총 443억원) ▲전남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2억 5000만 원(총 300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문학·예술·공연·전통문화·역사·문화콘텐츠 등 K-문화 모든 분야에서 국비를 고르게 확보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도 문화가 지속해서 융성할 제도적·구조적 여건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울산시, 보통교부세 9654억 확보

전년비 355억 ↑… 확보활동 성과

울산시가 2026년도 보통교부세로 9654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된 이번 교부세 규모는 지난해 9299억원보다 355억원(3.8%) 늘어난 것으로, 울산시가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다.

이로써 울산시의 2026년 국가 예산 확보액은 총 3조 7408억원에 달한다. 앞서 확정된 2조 7754억원에 보통교부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2080억원(5.9%) 증가한 규모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교부하는 자주 재원이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울산시는 교부세 산정 근거가 되는 기초 통계를 정비하고 꾸준히 행정 수요를 발굴했다. 또 행정안전부를 수시로 방문해 울산의 재정 수요와 교부세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울산시는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바탕으로 주요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부세 확보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많은 이의 노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했다”며 “내년에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AI 수도 울산 실현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경주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만가구 지원

경주시는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보다 현실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주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2131가구 1만 5643명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확대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소득 산정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의 폭도 넓어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폭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1인 가구는 월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7.2%,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6.51% 각각 인상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배기량 1000cc 이하·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인정된다. 다자녀 가구 적용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도 시행된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존 40만 원과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과 30% 추가 공제로 상향 적용해 청년층의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과했으나, 2026년부터 이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7436가구 904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맛있는 프리미엄 원두 커피, 편의점에서 저렴하게 마셔요”

세븐일레븐 ‘올 뉴 세븐카페’
원두배합 6종, 다크로스팅 적용

GS25, ‘카페25’ 론칭 10주년
스위스 명품 신형 커피머신 도입

이마트24, 트렌디 감성 ‘성수310’
감각적 패키지·전용 베이커리

CU ‘갯 커피’, 업계 첫 배달 서비스

편의점 업계가 커피 품질 고급화와 브랜딩 강화에 힘쓰고 있다. 고물이 장기화로 저가 커피 수요가 커지자 ‘초가성비’와 ‘프리미엄’으로 고객 수요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맛까지 킬러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웠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자체 원두커피 브랜드 ‘세븐카페’의 원두와 컵을 전면 리뉴얼한 ‘올 뉴 세븐카페’를 선보인다. 이번 리뉴얼은 꼬박 1년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다. 세븐일레븐은 롯데중앙연구소, 롯데웰푸드와 함께 3사 연합 ‘팀MD’ 체제를 구축해 최적의 맛을 찾아냈다.

세븐일레븐은 기존 4종이었던 원두



편의점 4사가 커피를 고급화해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모습.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

배합을 6종(브라질·콜롬비아·온두라스·에티오피아 등)으로 대폭 늘리고 다크로스팅 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선호하는 고소한 풍미와 묵직한 바디감을 극대화했다. 컵 디자인 역시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한 녹색과 주황색 패키지로 변경해 시각적 차별화를 꾀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커피 지식 수준이 스페셜티 급으로 높아짐에 따라, 편의점 커피도 전문점 수준의 품질을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는 판

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카페25’ 론칭 10주년을 맞은 GS25는 하드웨어 스펙에 투자했다. GS25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대당 가격이 1300만원에 달하는 스위스 명품 커피머신 브랜드 ‘프랑케(Franke)’의 신형 모델(A400 FLEX)을 도입해 전국 점포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기기보다 에스프레소 추출구 위치가 2.5cm 높아 대용량 컵 사용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이는 최근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

노)’ 트렌드와 대용량 선호 현상에 맞춰 기기 설비부터 바꾼 것이다. 고가 장비를 도입하면서도 ‘아메리카노 1000원’ 전략을 유지해 압도적인 가성비 우위를 점하겠다는 복안이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브랜딩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지난해 11월 론칭한 카페 브랜드 ‘성수310’은 본사가 위치한 성수동의 트렌디한 감성을 편의점에 이식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을 넘어, 성수동 유명 카페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과 전용 베이커리 라인업을 통해 ‘편의점의 핫플레이스화’를 노린다. RTD(Ready To Drink) 컵커피와 파우치 음료를 먼저 선보인 뒤, 커피와 어울리는 베이커리 류로 라인업을 확장해 ‘성수동 감성’을 전국 매장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CU는 배달과 대용량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자체 브랜드(PB) ‘갯(get) 커피’의 원두를 산미는 줄이고 고소함을 높이는 방향으로 리뉴얼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부터는 업계 최초로 배달 서비스까지 도입했다. 배달의 민족 ‘배민스토어’ 등을 통해 집이나 사

무실에서든 갯 내린 편의점 원두커피를 받아볼 수 있게 해 ‘퀵커머스’ 수요를 선점했다. 특히 전문점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나 배달비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편의점 4사가 커피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커피가 고객을 점포로 유인하는 강력한 ‘앵커상품(Anchor Product)’이기 때문이다. 커피를 구매하러 온 고객은 샌드위치, 김밥, 디저트 등을 함께 접어들 확률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해 GS25가 자체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두커피 브랜드 ‘카페25’의 동반 구매율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를 구매하러 온 고객 10명 중 8명 이상이 샌드위치나 디저트 등 다른 상품을 함께 접어 든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소비자들은 편의점 커피에서도 높은 수준의 맛과 경험을 기대한다”며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넘어 최상의 원두와 품질 혁신을 지속해야만 커피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아 다른 상품도 접어가도록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韓 관심사·소비 1위 ‘먹거리’… 식생활 트렌드 쫓는다

CJ제일제당, 설문·방문관찰 결과
한국 식문화 키워드 ‘DEEP’ 제시
식생활 유형 17가지 페르소나 세분화
요리 주제 확장으로 ‘홈파파’ 부상

한국인의 관심사와 소비 지출에서 ‘먹거리’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 중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가 음식이며, 개인 생활비 가운데 약 40%가 식품과 외식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은 10~7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식(食) 라이프스타일 설문 조사와 일부 가구 방문관찰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식문화 키워드로 ‘딥(D.E.E.P)’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딥(D.E.E.P)’은 ▲건강 식단의 일상화(Daily Wellness) ▲요리과정의 단순화(Efficiency) ▲식사메뉴의 글로벌

변화(Exotic) ▲식사 행태의 개식화(個食化·Personal)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2.3끼를 섭취하고 있으며, 간편식이나 밀키트 역시 ‘건강한 음식’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응답자의 68%는 “간편식과 밀키트로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식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65%에 달했다.

CJ제일제당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식생활 유형을 17가지 ‘페르소나(Persona)’로 세분화했다. 가족 식사를 책임지는 ‘홈파파’, 효율적 식사를 추구하는 ‘머니홀릭·워커홀릭’, 건강 유지를 중시하는 ‘웰니스 유지어터’, 규칙적 집밥을 선호하는 ‘시니어 컵’, 배달과 편의점을 적극 활용하는 ‘틴에이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요리 주체의 확장이다. ‘남성도 요리와 가사, 육아를 전담할 수 있다’는 응답은 73%에 달했으며, ‘결혼·출산 이후에도 맞벌이를 유지하거나 계획 중’이라는 응답도 61%로 집계됐다. CJ제일제당은 이 같은 인식 변화 속에서 ‘홈파파’가 주요 식생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과 식생활의 연계성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53%는 고혈압·비만·이상지질혈증 등 질병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86%는 “식단 조절을 통해 건강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식단 관리 방식으로는 ‘직접 요리한 집밥’이 4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식사 시간대는 저녁(79%), 점심(60%), 아침(46%) 순으로 나타났고, 70%는 “삼시 세끼를 꼭 챙길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평일 모든 식사를 가족과 따로

한다’는 응답은 24%로, 개인 중심의 식사 행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대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20~30대의 45%는 “간편식에 식재료를 추가해 먹는 것도 요리”라고 응답했고, 30대 이하의 61%는 치킨·짜장면 등 한국에서 정착한 해외 메뉴를 ‘한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30대의 56%는 “해외여행에서 먹었던 음식을 국내에서도 찾는다”고 답했으며, 20대의 52%는 해외 요리를 위해 소스 등을 구매해 직접 조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CJ제일제당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D.E.E.P’ 키워드에 맞춘 제품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상건강(Daily Wellness)’ 트렌드에 맞춰 고단백·저당·저탄수·저염 제품군을 확대한다. ‘햇반 라이스플랜’, 저당 ‘슈가라이트’, 프로틴 제품군을 강

화하고, 생선·닭가슴살 외에도 두·난 가공품과 고단백·저탄수화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효율(Efficiency)’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요리 과정을 단축한 제품도 확대한다. 코인 육수 ‘백설 육수’에는 1분 링’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고기·생선 요리를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백설 10분 쿡’ 메뉴를 다양화한다.

‘글로벌(Exotic)’ 트렌드에 맞춰서는 자메이카 치킨 등 해외 메뉴와 양식 소스류를 강화하고, 요리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와 협업한 컬래버레이션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화(Personal)’ 트렌드에 맞춰 1~2인분 제품과 소용량 제품을 전 카테고리 확대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70여 년간 한국인의 식생활 변화와 함께해 온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읽고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리온, ‘오! 그레놀라’ 인기에 생산라인 증설

기존 2배 생산능력 2배 가량 확대

오리온은 ‘마켓오네이처 오!그레놀라’(사진)의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공급 확대에 나섰다. 건강하고 간편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그레놀라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며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간편하면서도 균형 잡힌 한 끼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그레놀라가 식사대용식은 물론 건강 간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오!그레놀라’는 전체 브랜드의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30% 성장했

다. 특히 ‘오!그레놀라 저당 통보리’는 당 함량은 낮으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입소문이 나며 누적 판매량 100만 봉을 돌파했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품귀 현상이 빚어질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오리온은 늘어나는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익산 공장에 ‘오!그레놀라’ 생산라인을 추가 구축했다. 이번 증설로 생산 능력은 기존 대비 약 2배 가량 확대됐으며, 신규 오븐 등 최신 설비를 도입해 다양한 그레놀라 제품 구현도 가능해졌다.

현재 가장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오!그레놀라 저당 통보리’를 중심으로



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오!그레놀라가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더 많은 소비자가 오!그레놀라를 즐길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증설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과육 그대로 살린 ‘비요프 베리콩포트’”

서울우유협동조합, 소비자 의견 반영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고품질 원유에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등 세 가지 베리를 더한 믹스베리 콘셉트의 신제품 ‘비요프 베리콩포트(165g)’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신제품 ‘비요프 베리콩포트(165g)’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등 세 가지 베리류가 혼합된 제품으로, 과일을 조리 만드는 프랑스식 디저트 ‘콩포트’ 형태라 과육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출시해 10년간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비요프 베리믹스’ 제품에 대한 보이슈머(Voisumer) 소비자

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예전 제품에 블루베리 과육을 더해 한층 고급스러운 맛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상큼한 3가지 믹스베리와 진한 요거트가 조화로운 건강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발효유마케팅팀 이은경 팀장은 “3가지 베리 원물을 그대로 살린 고급스러운 맛의 ‘비요프 베리콩포트’를 새롭게 선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만의 고품질 원유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맛과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물론, 글로벌 입맛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발효유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먹는 비만약’ 시장선점 경쟁 치열

K-기업, 임상·플랫폼 개발 ‘추격’

일동제약
연내 ‘ID110521156’ 임상2상 목표

디앤디파마텍
경구 약물전달 플랫폼 자체 개발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먹는 비만약이 등장했다.

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가 주사기 없이 간편하게 먹는 비만약 ‘위고비 필’을 5일(현지 시간)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공식 출시했다. 이번 발매는 지난해 12월 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위고비 필이 세계 첫 먹는 비만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2주 만의 속도전이다.

이 약은 기존 ‘위고비 주사제’와 같은 성분인 세마글루티드를 1일 1회 경구 처방한 것이다. 용량은 1.5mg, 4mg, 9

mg, 25mg 등으로 제공된다. 노보 노디스크는 CVS, 코스트코 등 대형 약국 체인, Ro, LifeMD 등 원격 의료 플랫폼, 직접 판매 채널인 노보케어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공급에 나선다.

일라이 릴리의 ‘오포글리포르’도 미국 FDA에서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미국 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이르면 오는 3월 승인여부가 발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먹는 비만약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라이 릴리는 지난해에는 이중 작용제 ‘젼바운드’를 앞세워 노보 노디스크를 추월한 바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노보 노디스크가 경구제 시장을 선점하며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다른 제약 업계 관계자는 “향후 일라이 릴리 또한 발빠르게 승인 및 발매

절차를 거치면서 양사의 공급망 확보 등도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국산 먹는 비만약에 도전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먹는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ID110521156’을 확보했고 현재 임상 1상에 진입해 있다. 올해 글로벌 임상 2상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동제약의 ‘ID110521156’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작용제 계열 약물이면서, 비(非)펩타이드 기반의 저분자 화합물인 것이 특징이다.

디앤디파마텍은 경구 약물 전달 플랫폼 ‘오랄링크’를 자체 개발해 먹는 비만약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를 내놨다. 디앤디파마텍은 2023년과 2024년 미국 바이오 기업 멧세라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을 기술이전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리아, ‘통다리살 크리스피치킨버거’ 선보
롯데리아가 6일 서울 용산구 롯데리아 속대입구역점에서 신메뉴 ‘통다리살 크리스피치킨버거’ 2종을 선보이고 있다. 통다리살 패티로 풍부한 육즙을 자랑하는 이번 신메뉴는 그릭랜치와 파이어햇 두가지 맛으로 출시된다.

/손진영 기자 son@

HLB, ‘리라푸그라티닙’ FDA 품목허가 추진

계열 내 최고 약물 기능성 데이터 확보

HLB그룹은 리라푸그라티닙이 글로벌 임상 2상에서 계열 내 최고 약물 기능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확보해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리라푸그라티닙은 담관암 신약 후보물질로, HLB그룹의 핵심 과제다. 이미 2023년에는 미국 FDA에서 ‘혁신 신약’으로 지정받아 신약허가신청 시 우선심사 대상이기도 하다.

HLB그룹에 따르면, 이번 임상은 FGFR2 융합·재배열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리라푸그라티닙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47%로 나타났다. ORR은 1차 평가 지표로, 독립평가위원회(IRRC)가 고형종양 반응평가 기준(RECIST v1.1)에 따라 평가했다. 2차 평가지표

인 반응지속기간 중앙값(mDOR)은 11.8개월로 확인됐다.

이번 발표는 FGFR2 융합·재배열을 보유한 담관암 환자 전체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특히 독립평가위원회 평가 기준의 주요 효능 지표 전반에서 경쟁 약물 대비 주목할 만한 임상적 성과를 거뒀다. 기존 담관암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획득한 범-FGFR 억제제인 ‘페미가티닙’과 ‘푸티바티닙’의 ORR은 각각 36%, 42%이며, mDOR은 9.1개월, 9.7개월로 알려졌다.

리라푸그라티닙은 안전성과 내약성도 입증했다. 3등급 이상 치료 관련 주요 이상반응으로 손발바닥 홍반각각이 상증후군이 32.8%, 구내염이 12.1%로 보고됐다. FGFR2 억제 기전에 부합하고 예측 가능하며 용량 조절을 통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美 브랜치버그 생산시설 개소

美 안정적 생산·공급 체계 구축
글로벌 CMO·CDMO 사업 박차

셀트리온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Branzburg)에 위치한 생산시설에서 개소식을 갖고,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미국 내 핵심 생산 거점을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셀트리온이 지난해 말 브랜치버그 시설 인수 완료 후 개최된 첫 번째 공식 행사로, 해당 시설이 글로벌 생산의 핵심 전초기지로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소식에 직접 참석한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향후 연구센터까지 포함한 종합 위탁개발생산(CDMO) 생산 기지로 확장시켜, 송도 본사와 함께 셀트리온의 글로벌 성장의 큰 축을 맡게 할 것”이라며 해당 시설이 그룹 글로벌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가운데)이 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Branzburg)에 위치한 생산시설에서 개소식을 갖고 있다.

사업 전략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서 회장은 셀트리온 브랜치버그(Celltrion Branchburg LLC)의 신임 대표이사로 토드 윈지(Todd Winge)를 공식 임명하며 현지 경영 체제의 가동을 선언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브랜치버그 생산시

설 개소를 기점으로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미국 내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라이 릴리가 운영하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시설을 인수해 신규 거점 확보에 소요되는 기회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와의 바이오 원료의약품(DS) 위탁생산(CMO) 계약 체결 및 현지 숙련 인력의 고용 승계까지 마무리하며, 생산 연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

향후 셀트리온은 해당 시설을 미국 향(向) 자사 제품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 대상의 CMO 및 CDMO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삼을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박상영 “부당한 유사언론행위 강경 대응”

〈광동제약 경영총괄 대표〉

광동제약 신년간담회

박 대표 “건전한 언론환경 기여”

광동제약은 신임 경영진과 ‘유사언론심의전문위원회’의 신년 간담회를 열고, 유사언론의 악성 보도와 사실 왜곡 관련 대응원칙을 재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상영 경영총괄 대표(사진) 취임에 따라 향후 유사언론 대응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일부 매체의 부당한 유사언론행위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단계별 취재협력 기준에 따라 원칙적인



대응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유사언론의 왜곡 보도를 모니터링 대상에서도 제외해 불필요한 역량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유사언론의 주요 행태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본질을 왜곡하거나, 과거 보도 내용을 재편집해 악의적으로 반박 송출하는 행위, 내용과 무관한 최고 경영자(CEO) 사진 노출 등을 꼽았다. 또 특정 사안을 정부 정책 취지와 다르게 해석하거나, 자의적인 분석과 전망을 업계 여론으로 포장해 일방적으로 주장

하는 행위, 광고·협찬이나 수익성 행사 참석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행해지는 보복성 보도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적시하며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전·현직 언론인, 각급 기자회견 임원, 언론학회 전문가 등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업이 일부 왜곡 보도나 부당한 압박에도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 광동제약 신임 각자대표는 “언론의 객관적인 분석과 타당한 비판은 귀를 기울이고 적극 수용하되 광고나 협찬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행태에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기업 신뢰회복과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절차에 따른 대응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메타비아, ‘DA-1726’ 체중감량 효과 확인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동아에스티 관계사… 임상 1상 순항

동아에스티 관계사 메타비아는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DA-1726’ 추가 임상 1상에서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 혈당 강하 및 간 경직도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DA-1726은 육신도모돌린 유사체 계열의 신약 후보물질이다.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 작용해 식욕은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는 촉진한다. 특히 말초에서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

이번 추가 임상은 비만이지만 체질량 지수가 30~45kg/m² 인 건강한 성인 9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DA-1726 48mg 또는 위약을 4주와 8주간 주 1회 투여했다. 그 결과, DA-1726 48mg 투여군에서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4주째 평균 체중은 6.1%(6.6kg), 허리둘레는 5.8cm(2.3인치) 감소했다. 8주째 평균 체중은 9.1%(9.6kg), 허리둘레는 9.8cm(3.8인치) 감소했다.

김형헌 메타비아 대표는 “DA-1726은 이번 추가 임상 1상을 통해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를 재확인하고 혈당 강하, 간 경직도 감소 효과까지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후 진행될 16주간의 임상을 통해 차세대 비만치료제로서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제일약품 ‘자큐보구강붕해정’ 출시

국산 37호 신약 P-CAB 치료제 ‘자큐보정’이 출시 15개월 만에 구강붕해정(ODT) 제형을 추가했다.

제일약품은 이달 1일부터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구강붕해정 20밀리그램(사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자큐보구강붕해정’은



지난 2024년 10월 첫 출시한 ‘자큐보정’의 신규 제품이다.

물 없이도 입안에서 빠르게 녹는 ODT 제형으로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연하곤란 환자나 복용 편의성을 중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LIG넥스원, 서울현충원서 '애국 시무식'

LIG넥스원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애국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구본상 LIG 회장을 비롯해 LIG넥스원과 (주)LIG, LIG시스템, 휴세코, 이노와이어리스 등 계열사 임직원 약 90명이 참석해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했다.

/LIG넥스원



신한라이프, 올해 '경영전략회의 개최'

신한라이프는 지난 2일 '트러스트 퍼스트, 밸런스 그로스 (TRUST FIRST, Balanced Growth) 2026'이란 전략 슬로건 아래 내실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자 '2026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신한라이프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4가지 핵심전략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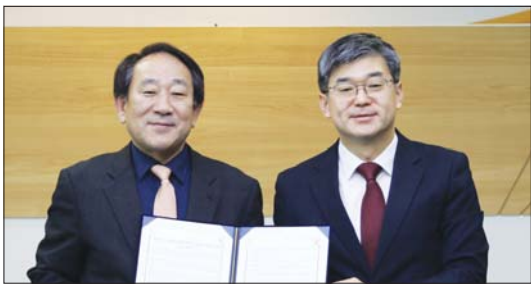
/신한라이프



캠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기술혁신기업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기술혁신기업 공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전국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들의 업무 역량을 연계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캠코



철강협회, AI·SW협회와 AI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한국철강협회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AI·SW협회)와 '철강산업 AI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 및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철강협회

GC녹십자웰빙

정시영 신임 연구개발본부장 선임

GC녹십자웰빙은 신임 연구개발본부장에 정시영 박사를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정시영 연구개발본부장은 약학 전문가다.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연구개발(R&D), 사업개발(BD), 인허가(RA)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정 본부장은 한미약품에서 제제연구 및 해외 RA, 라이선싱 및 개발 전략 업무를 수행했으며, LG생명과학에서는 임상개발팀 과장을 맡아 임상 개발 및 CRM 업무를 담당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상하이 임정 청사 복원... 삼성, '송산 프로젝트' 재조명

삼성물산 직원 자발 제언 복원 추진
사라질 위기농인 임정청사 보존 계기
韓·中 수교 이전 민간차원 사업 진행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찾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으나 삼성물산 직원들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지난 1993년 복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조명되고 있다.

6일 삼성에 따르면 중국과 정식 수교(1992년 8월) 이전인 1990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삼성물산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가 흔적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때 복원된 청사는 1926년 7월부터 임시정부가 항저우로 옮겨간 1932년 4월까지 약 6년간 임시정부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후 오랫동안 민가로 방치되면서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다.

이에 삼성물산은 1990년 12월 '잘못 소개된 우리의 역사'라는 제목의



복원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내부. 상·하단 복원직후(1993년).

책자를 발간한 것을 계기로 문화사업 확대를 위해 사내에서 '이벤트 현상 공모'를 실시했다.

당시 중국상하이 출장에서 돌아온 유통본부 영업담당 이재정 부장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복원 건'을 제안했고,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이 본사 경영회의를 통과하며 '송산(嵩山) 프로젝트'로 명명됐다. 한국의



상·하단 최근 모습.

/삼성

정통성을 드높이고 선인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였다.

삼성물산은 당시 문화부, 독립기념관의 협조를 얻어 1991년 중국 상하이시 측과 복원합의서를 채택했다.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계단, 창틀 등 세세한 부분을 손질했다. 수소문 끝에 1920년대에 사용하던 탁자,

의자, 침대 등을 수집해 회의실, 부엌, 접견실, 집무실, 숙소 등을 임시정부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했다.

1993년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맞춰 진행된 준공식에는 김구 주석의 아들 김신 전 교통부 장관,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춘선 전 광복회장, 윤봉길 의사의 손자 윤주웅 씨, 최창규 독립기념관장, 삼성물산 신세기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주웅 씨는 당시 삼성물산에 보낸 감사 편지에서 "할아버지가 비감한 마음으로 수시로 드나들었을 임시정부 청사가 복원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설렘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며 "참으로 다행히 이 건물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게 노력해 준 삼성물산과 독립기념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은 상하이 임정 청사 복원사업과 함께 중국 내 산재해 있는 한국 문화재 실태조사를 시행해 1400여건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이를 종합해 중국과 국내에서 관련 책자를 발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U+, '119메모리얼런 티셔츠' 판매

수익금 전액 순직 소방관 가족 전달

LG유플러스가 '119메모리얼런 기념 티셔츠' 판매 수익금으로 순직 소방관의 희생을 알리고 유가족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119메모리얼런 기념 티셔츠는 지난해 11월 2일 열린 순직 소방관 추모 마라톤 대회 '119 메모리얼런' 행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행사 당시 참가자와 현장 방문객들 사이에서 추가 구매 요청이 이어지면서, LG유플러스는 티셔츠 추가 판매를 결정했다.

티셔츠는 통신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LG유플러스 모바일 커머스 'U+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3만3000원이며, 300장 한정으로 판매된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방가족 희망나눔 재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G유플러스가 제작한 추모 티셔츠의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그간 소방청과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AI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한 순직 소방관 목소리 복원, 추모 마라톤 '119 메모리얼런' 개최 등 소방관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향후에도 소방청과 협력해 소방관 복지와 교육, 추모를 위한 지원과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병오, K-패션·첨단기술 융합 위상 부각

〈패션그룹형지 회장〉

李 대통령과 방중 경제사절단 참석

패션그룹형지는 최병오 회장이 지난 5일 중국 현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간담회와 국빈 만찬 등 핵심 일정에 패션 기업인으로 유일하게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허리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국내 주요 1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패션 기업의 대표 자격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술 기업의 리더로서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 사업 비전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최 회장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



형지 최병오 회장이 패션 기업인으로 유일하게 시진핑 주석 주최 국빈만찬 참석해 중국 대기업들과 교류했다.

/패션그룹형지

장이자 형지의 창업주로서 K-패션의 성장사를 소개하고, 중국 '빠오시니아오' 그룹과 합작한 '상해엘리트'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풀무원, '음성 두부공장 견학' 참가자 모집

사계절 테마형 체험 운영

풀무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두부 생산시설을 갖춘 풀무원 음성 두부공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고객 체험 '2026 음성 두부공장 견학'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풀무원은 2008년부터 충북 음성에 위치한 두부공장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무료 고객 체험 '풀무원 팩토리'를 운영해 왔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

품 생산·물류 현장 관람은 물론, 제품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개인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한 식문화와 풀무원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재개되는 개인 대상 대면 공장 견학은 사계절에 맞춰 시즌별 테마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협력담당관 황다은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전보)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계홍 △민간임대정책과장 조성태

부음

▲이기환씨 별세, 이재영(전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씨 부친상=6일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3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40분. 031-249-8444

©M I/T, F, E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마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고마워요, 척” 삶이라는 이름의 우주



홍 경 안 의
시시일각

인간은 오래전부터 별을 죽음 이후의 자리로 사유해 왔다. 단테의 ‘신곡’에서 별은 영혼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질서의 좌표였고, 고흐 역시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별에 가는 것은 아널까 질문하며 삶 너머의 장소로 별을 떠올리곤 했다. 이 외에도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비롯해, 구스타프 말러, 호안 미로 등 많은 예술가들이 별을 삶과 죽음의 기호로 다뤘다.

나 또한 유사한 상상을 한 적이 있다. 갑수성 풍부하던 유년 시절, 나는 검은 벨벳 위에 은빛 모래알을 흩뿌려놓은 듯 반짝이던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이름 모를 누군가의 낯이라 믿었다. 그래서였을까, 그 시절의 내게 밤하늘은 거대한 장례식장이었다.

최근 개봉한 마이크 플래너건 감독의 영화 ‘척의 일생’ (The Life of Chuck, 2024)에서도 별은 주요 모티프다. 교사 마티가 그리워하던 펠리샤의 손을 잡고 맞이하는 세상의 끝에서도, 어린 척의 배경으로도 설

정된다.

우리는 보통 삶을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 서사로 이해한다. 하지만 스티븐 킹의 소설 집 ‘피가 흐르는 곳에’ (2020)에 수록된 동명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척의 일생’은 삶을 기억의 구조로 제시한다. 특이하게도 3막에서 1막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연대 기적 구성이다.

그 중 3막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재난 영화의 풍경과는 다르다. 어느 순간 밤하늘의 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 불을 끄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완전한 암흑으로 뒤덮이는 장면은 그 어떤 물리적 폭발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여기서 사라지는 별들은 주인공 척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기억의 파편들이다. 그가 평생을 살며 품어온 내면의 우주다. 특히 뇌종양으로 인한 척의 죽음은 집단적 멸망이 아닌, 한 개인이라는 고유한 우주가 거행하는 퇴장의 의식이다. 우주는 개인 안에 있고,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세계라는 명제를 사유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실제로 영화는 월트 휘트먼의 시 ‘나 자신의 노래 (Song of Myself)’에 나오는 “나는 내 안에 다수를 포함하고 있다 (I contain multitudes)”를 빌려 말한다. 우리 각자

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과 수만 개의 풍경이 사는 거대한 우주가 있다고.

영화는 전반에 걸쳐 “고마워요, 척 (Thanks, Chuck)”이라는 표현을 반복한다. 이는 이별의 인사라기 보단 삶에 바치는 헌사가 가깝다. 39년이라는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하는 평범한 회계사 척에게 세상이 건네는 이 말은 당신이 존재했기에 이토록 경이로운 세계가 가능했노라는 경의의 표시다.

새해다. 선행적으론 어제의 연속이요, 단지 신으로부터 삶이라는 길을 다시 걷도록 허락받은 것에 불과하다. 밤하늘 역시 어제의 그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죽음의 장례로 읽히진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직은 한 개인의 소중한 기억이 단하지 않은 채 별들로 가득한 우주를 잠시나마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다. 마티와 펠리샤처럼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더욱 그렇다. 설사 어느 날 갑자기 기억된 순간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리 헛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빛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들의 기억 속으로 이동할 뿐이므로.

/미술평론가

이제 디지털자산은 ‘눈치게임’이 아니다



기지 수첩
신 하 은
(자본시장부)

지난달 증시에서 증권사들의 준비성이 확인됐다. 고점을 향해 가는 코스피와 상반되게 증권 업종은 전반적으로 차분했다. 다만 조용히 준비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갈라지고 있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만 선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가의 등락보다, 누가 이미 다음 단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가 분명해진 시기였다.

증권사들이 찾는 ‘새로운 먹거리’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다. 기존 수익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지에 가깝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에 이어 디지털자산이 거론되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게 디지털자산은 여전히 ‘해볼까 말까’의 영역일까. 적어도 요즘 시장에서 그 질문은 이미 과거형에 가깝다.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증권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 변동이 아니라 제도화다. 법과 규칙이 마련되는 순간, 디지털자산은 ‘하고 싶으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준비된 곳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STO) 법안 통과가 갖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회를 여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진입장벽을 세운다.

이 장벽 앞에서 증권사들의 출발선은 같지 않다. 대형사는 이미 인프라와 인력,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실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중소형사 대부분은 기존에 노출

됐던 사업에서만 성패가 좌우된다. 자본 여력과 조직 규모의 한계로 신사업 진입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디지털자산이 본격화될수록 증권사 간 격차는 단순한 성과 차이를 넘어, 사업 구조의 차이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발주자의 유리함은 단순히 먼저 뛰어 들었다는 데 있지 않다. 제도가 시행되는 순간, 시장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시스템과 통제를 먼저 갖춘 곳은 규칙을 설계하는 쪽에 서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규칙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자산 역시 단기적인 테마라기보다는 어떤 구조로 다음 사이클을 맞이할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증권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눈치를 보느냐, 준비를 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간극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godhe@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병오년 띠별 신수 ①



오(午)는 자오(子午) 충이요, 묘유(卯酉)와는 형살의 기운이고 사유축(巳酉丑)은 합이 기운이다. 충(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부딪히고 찌르는 기운이라 해서 달갑게 여기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충의 기운이 안 좋은 흐름을 오히려 흔들어 놓기에 세운이나 월 운으로 오는 천간지지의 작용을 잘 살펴야 한다. 합(合)의 경우 역시 합이라 해서 반드시 길신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니 각자의 사주 구성에 따라서 적용의 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띠별 적용 때에도 월 일 시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라서 통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더 자세한 분석은 연월 일시의 상호작용을 살펴야 한다. 십이간지의 첫 번째인 쥐띠는 일단 자중자애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뽕가 변화를 추구하는 들쭉거림이 있는 해우년이 된다. 소띠들의 경우는 말과는 원인이 된다.

원인이란 뽕가 짜증이 나고 만족스럽지 못하여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발생하는 형국이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움을 키워나가는 것이 지혜가 된다. 호랑이띠들은 말해를 만나 기운이 활발함을 느낀다. 말과는 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자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음을 느끼는 기분이다. 토끼띠들은 말과는 형 살의 기운이 일차적 이므로 돌발적인 일로 피곤할 수 있다. 순리를 따른다는 마음으로 과욕은 금물이다. 용띠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 기어와 같은 흐름이다. 차분히 계획한 대로 성실을 발휘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뱀띠들은 말과 함께 상승 분위기를 즐기는 모양새다. 적도마가 뛰니 같은 화기운인 뱀은 덩달아 힘이 난다. 해묘미(亥卯未),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늘 삼재에 해당되니 경계망동을 삼가고 정리·정돈하는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2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현대차 GBC, 공공기여 2조로 늘려 글로벌 문화시설 조성

〈서울 삼성동〉

서울시와 최종협상… 2031년 준공
전시장·공연장·도심숲 등 예정
일부 교통개선대책 추가 부담 합의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7만 9341㎡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사업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다시 시동을 건다.

49층 타워 3개동에는 오피스와 호텔을 비롯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전시장 등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타워동 최상층부에는 한강과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공간을 설치한다. 타워 사이에는 서울광장 2배 규모 녹지도 조성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로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완료했다. 공공기여 총액을 기존보다 늘려 약 1조 9827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일부 교통개선대책 추가 부담도 합의해 시민공간



서울 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완료했다. GBC 사업은 코엑스 맞은편에 현대차그룹 신사옥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현대차그룹이 2014년에 옛 한전부지를 매입하고 2016년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거쳐 최고 105층 높이 업무·호텔·문화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서울시

과 편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GBC 사업은 코엑스 맞은편에 현대차그룹 신사옥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에 옛 한전부지를 매입, 2016년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거쳐 최고 105층 높이 업무·호텔·문화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후 군 작전 제한 사항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에 따

라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2월 변경계획(안)을 제출했고 도시·건축, 교통, 공공기여 등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 지난해 말 최종협상이 마무리됐다.

◆전망 공간, 전시장·공연장 등 조성
협상 결과, 약 242m 높이 49층 타워 3개 동에는 업무·호텔·판매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영동대로변 전면부에는 전시장 및 공연장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아울러 전시장과 공연장을 포함한 저층부 옥상(높이 약 40m)에는 약 1만5000㎡의 대규모 정원을 조성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확보한다.

‘전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 과학관 등과 협업해 기초과학 중심의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다양한 전시·회의 등 유니크 메뉴로도 복합 활용될 전망이다.

약 1800석 규모 ‘공연장’은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서울의 문화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워동 최상층부에는 전망공간을 설치해 시민들이 한강·탄천·강남 도심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GBC 중앙에는 영동대로와 지상광장을 연결하는 1만4000㎡의 대규모 ‘도심숲’도 들어선다.

◆공공기여 총 1조 9827억원으로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당초 계획했던 특정지정용도 이행 곤란에 따라 공공기여 총액을 약 1조 9827억원으로 증액하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공공기여 제공과는 별개로 현대차그룹은 전시장, 공연장, 전망공간 등 공공시설을 규모 있게 설치하고 일부 교통개선대책도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특정 지정 용도는 폐지했지만, 전시장, 공연장, 전망 공간 등 시민 문화·여가시설을 규모 있게 설치·운영해 개발 계획 공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당초 교통개선대책인 삼성역 확장, 버스환승센터 설치 등에 더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일부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GBC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일대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 한강·탄천 수변공간 조성 등에 사용 중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의학계열 정시지원 전년비 25% ‘뚝’

자연계 높고 상위권 진로 지형 변화
의대 지원자 수 감소 폭 가장 커

202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지원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연계는 오히려 늘어 상위권 수험생의 진로 선택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

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정시에서 의·치·한·수·약 등 의약학계열 전체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6001명, 24.7% 감소해 1만8297명으로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약대 학부 전환이 완료된 2022학년도 지원자 수(2만 7221명)과 비교해 8924명, 32.8% 줄어든 규모다. 반면 서·연·고 자연계열 지원자 수는 428명, 4.4% 증가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의대 지원자 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년 대비 ▲의대 32.3% ▲약대 22.4% ▲치대 17.1% ▲수의대 14.5% ▲한의대 12.9% 줄며 의약학계열 전 부문이 동반 하락했다. 의대 모집정원 축소에 따른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실제 감소 폭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특히 경인권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의약학계열 정시 지원자 수는 서울권에서 582명, 11.6%, 경인권에서 647명, 38.7% 줄었다. 이밖에 ▲충청권 1266명(30.2%) ▲대구경북권 1098명(30.2%) ▲호남권 978명(26.9%) ▲부울경 695명(25.4%) ▲강원권 449명(20.7%) ▲제주권 286명(22.8%) 감소했다.

지원자수 감소에도 경쟁률은 부문별로 엇갈렸다. 2026학년도 기준 의대 평균 경쟁률은 6.61대 1, 한의대 10.59대

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치대(5.58대 1) ▲약대(7.38대 1) ▲수의대(8.32대 1)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 전국 109개 대학 의약학계열 평균 경쟁률은 7.23대 1이었다.

이와 달리 서·연·고 자연계열은 지원자 수가 증가했다. 서울대 자연계는 221명 줄었지만, 연세대는 192명 늘었고 고려대는 457명 증가했다. 서·연·고 인문계열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374명(16.3%)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이번 결과를 두고 의대 선호도 하락이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확산하며, 의약학계열 전반에 대한 선호가 주춤한 흐름으로 해석했다. 다만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대 모집정원과 관련한 정책 변수에 따라 향후 지원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수원시, ‘생활비 패키지’로 경제 부담 완화

출산·교통·주거 지원하고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혜택

수원시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 무상교통 ▲사회초년생 청년 무상교통 ▲등록 장애인 무상교통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출산 가정부터 청소년·청년·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고르게 혜택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 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는 1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

째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최대 16만8천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 주거 패키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9~39세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이사비·중개보수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지원된다. 2026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 2027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1월 26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교통 분야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 19~23세 사회초년생 청년, 수원시 등록 장애인에게 무상교통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28만 원 한도로 실제 이용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인하대, 지역정주형 인재 키운다

인천 지역 특성화고와 업무협약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인천금융고등학교·인천중앙여자고등학교와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장현 인하대 I-RISE 인재양성추진단장과 전용화 인천

금융고등학교 교장, 채옥선 인천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진학 및 전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특강 등 공동 기획·운영 ▲교육 인프라 및 인적 자원의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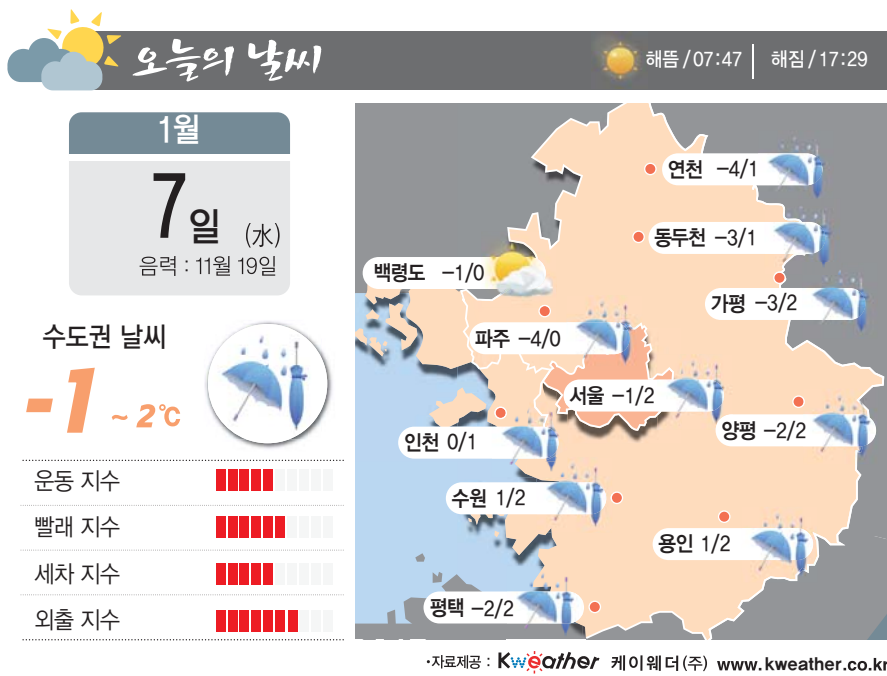


전용화 인천금융고등학교 교장, 이장현 인하대 I-RISE 인재양성추진단 단장, 채옥선 인천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젤렌스키, 캐나다 전재무장관 경제 고문으로 위촉
▲베네수엘라 석유 다음은 그린란드? 트럼프 ‘돈로 독트린’ 가동

/사진 뉴시스

▲트럼프 관세에도 8% 성장한 베트남…대미 수출·흑자 역대 최대
▲日정부, 한중 정상회담 논평 코멘트 피해 “韓과 긴밀 의사소통”

▲中‘대만 포위 훈련’ 때 폭격기 등 8대, 日 오키나와·미야코 통과
▲스위스 화재 참사 신원 확인 완료…사망 40명·부상 116명



“프리미엄 원두커피
편의점에서
저렴하게 마셔요”
L1



Life

삼성
송산 프로젝트
재조명
L4



SK하이닉스, ‘HBM4 16단’ 첫 선 차세대 AI 메모리 솔루션 총출동

CES 2026

AI 최적화 ‘차세대 메모리’ 공개
업계 최고속도 ‘HBM4 12단’ 후속
AI 특화·범용 제품 라인업 전시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인 ‘HBM4 16단 48GB’를 6일(현지시간) 열리는 ‘CES 2026’에서 최초 공개한다.

SK하이닉스는 사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6’ 베네시안 엑스포에 고객용 전시관을 열고 차세대 AI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SK그룹 공동 전시관과 고객용 전시관을 함께 운영해 왔는데 올해는 고객용 전시관에 집중해 주요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CES2026 SK하이닉스 전시 조감도.

/SK하이닉스

주제로 AI에 최적화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폭넓게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HBM4 16단 48GB’은 업계 최고 속도인 11.7Gbps를 구현한 HBM4 12단 36GB의 후속 모델로, 고객 일정에 맞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전체 HBM 시장을 주도할 HBM3E 12단 36GB 제품도 전시한다. 특히 이 제품이 탑재된 글로벌 고객사의 최신 AI 서버용 GPU 모듈을 함께 전시해 AI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HBM 외에도 AI 서버 특화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SOCAMM2도 전시해 폭증하는 AI 서버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AI 구현에 최적화된 범용 메모리 제품 라인업도 전시해 시장 전반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제품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크게 개선한 ‘LPDDR6’을 공개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이노텍, AIDV 시대 모빌리티 솔루션 공개

자율주행 융복합 센싱 솔루션 선봬
고객 맞춤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도약

LG이노텍이 인공지능 정의 차량(AIDV) 시대를 맞아, AD(자율주행), ADA 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제품을 선보인다. 회사는 전장부품 기업을 넘어 고객 맞춤형 모빌리티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새롭게 포지셔닝 한다는 방침이다.

LG이노텍은 오는 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6’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시부스 내부에 들어서면 미래지향적인 자율주행 컨셉가 목업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AD·ADAS 관련 제품 16종이 목업에 탑재됐다.

자율주행 목업에서는 차량 내·외부를 아우르는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LG이노텍은 자율주행 융·복합 센싱 솔루션을 히어로 제품으로 앞세웠다. 다양한 부가기능을 장착한 차량 카메라 모



LG이노텍 CES 2026 프리부스. /LG이노텍

듈에 라이더(LiDAR), 레이더(Radar)를 결합했다.

눈이나 서리를 빠르게 녹이는 히팅 카메라 모듈뿐 아니라, 렌즈에 낀 물기와 이물질을 단 1초 만에 털어내는 액티브 클리닝 카메라 모듈은 기존 대비 사이즈가 한층 작아졌지만, LG이노텍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능은 한층 업그레이드돼 눈길을 끈다.

자율주행 목업은 직접 시승해 볼 수도 있다. 운전석에 앉아 전방에 설치된 LED 스크린으로 LG이노텍의 센싱 솔루션이 선사하는 차별화된 자율주행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라이즈’와 일상 AI 경험 알린다

CES서 ‘더 퍼스트룩’ 행사 참여
신제품·서비스 직접 체험하고 공유

삼성전자가 6인조 K팝 아티스트 ‘라이즈(RIIZE)’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6에서 AI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혁신 경험을 전 세계 고객에게 선보였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라이즈는 삼성전자가 개최하는 ‘더 퍼스트룩’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삼성전자 전시장 곳곳에서 신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경험을 전 세계 고객들과 공유했다. 라이즈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브랜드

멤버서더로서 ▲라이즈의 첫 정규 앨범 ‘오디세이’ 뮤직비디오 ▲‘갤럭시 워치 8’ 광고 영상 ▲‘스마트싱스’ 소셜 콘텐츠 ▲‘삼성 헬스’ 글로벌 음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삼성의 혁신 기술과 브랜드 메시지를 전파해왔다.

앞서 라이즈 멤버 전원은 지난 4일(현지 시간) 진행된 삼성전자의 ‘더 퍼스트룩 프레스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해 삼성전자의 비전과 신제품을 직접 경험했다. 또 삼성전자 전시관에 전시된 다양한 AI 제품 가운데 각자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소개하는 숏폼 영상 콘텐츠도 제작했다. /차현정 기자

“행동하는 AI 시대, 로봇으로 미래 기준 제시”

류재철 LG전자 CEO, AI 비전 공개
AI 홈 비전 ‘제로 레이버 홈’ 현실화

“LG전자는 ▲탁월한 제품 ▲공감기능 ▲연결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AI’ 시대를 이끌 준비가 돼 있다.”

류재철 LG전자 CEO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당신에게 맞춘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LG 월드 프리미어’에서 대표 연사로 등단해 이같이 말했다.

류 CEO는 AI홈을 언급하며 “훌륭한 기기”가 사용자에 맞춰 적응하며 사용자



류재철 LG전자 CEO가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LG 월드 프리미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LG전자

의 선호도를 학습하는 ‘에이전트 가전’으로 진화하고, 나아가 이들이 하나의 잘 조율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AI홈

로 동작하면 AI홈 비전인 ‘제로 레이버 홈’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공감기능이 하나로 조율한 기기, 솔루션, 공간을 통해 실질적 고객가치를 전달하는 공식은 AI 홈로봇 ‘LG 클로이D’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LG 클로이D를 스스로 주변을 감지하고 판단해 직접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가정에 특화된 에이전트’로 정의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미래 가정 생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위아, 미래 로봇 플랫폼 ‘H-모션’ 선보

CES 첫 참가… 제조·물류 로봇 선봬

현대위아는 CES 2026에서 제조·물류 현장에서 쓰이는 ‘모빌리티 로봇’을 선보였다.

현대위아는 현재 글로벌 모빌리티 제조 현장에서 사용 중인 물류로봇과 주차

로봇, 협동로봇 등 현대위아의 로봇 플랫폼 ‘H-모션’을 공개했다. 자율주행 물류로봇(AMR)은 최대 1.5t에 달하는 무게를 실어 나를 수 있다. 라이더를 이용한 자율주행과 QR코드 인식을 통한 가이드 주행 모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물건을 올리는 차상장치(탑 모듈)도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고 물품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리프트’, 물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턴테이블’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협동로봇은 기존 로봇과 다르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다. 현대위아는 최대 15kg을 들 수 있는 협동로봇을 비치해 물건을 스스로 인지하고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ysw@

업계최초 음성제어 기술 공개

두산밥캣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미디어 데이에서 음성명령으로 작동하는 차세대 소형 건설장비 기술을 공개했다.

스택박 두산밥캣 부회장은 이날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 효율을 개선하는 건설현장 솔루션을 발표했다. 해당 기술들은 장비 조작을 간소화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

하는 한편, 복잡한 현장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두산밥캣은 소형 건설장비 업계 최초로 AI 기반 음성 제어 기술인 ‘밥캣 잡 사이트 컴패니언’을 선보였다. 작업자는 음성 명령만으로 장비 설정과 엔진 속도 조절, 조명·라디오 제어 등 50여 가지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작업 내용과 사용 중인 부차 장비(어태치먼트)에 따라 최적의 세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메트로 한줄뉴스



▲피겨 차준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 메달권 진입 도전 /사진 뉴시스
▲롯데, 코치진 구성 완료 …강석천 수석·이헌곤 수비코치 합류

▲한일 탁구 간판 격돌 …신유빈, 올해 첫 WTT 대회서 하리모토와 대결
▲‘정우영 교체 출전’ 유니온 베를린, 아우에와 친선전서 승리

▲반등 노리는 SSG 김광현, 후배들과 미니캠프서 구슬땀
▲최형우·박찬호 떠난 KIA…책임감 막중한 김도영·나성범